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도시사회학 석사학위 논문

사회적 연대로서의 기부행위

- 아름다운재단 노란봉투 캠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

Giving Behavior as Social Solidarity: Focused on
the Case of Yellow Envelope Campaign in 2014

2016년 2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사회학과

안 효 미

사회적 연대로서의 기부행위 연구

- 아름다운재단 노란봉투 캠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
Giving behavior as social solidarity : Focus on the case of
Yellow Envelope campaign in 2014

지도교수 남 기 범

이 논문을 도시사회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2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사회학과

안 효 미

안효미의 도시사회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서 우 석 인

심사위원 안 준 희 인

심사위원 남 기 범 인

2015년 12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국문초록

사회적 연대로서의 기부행위

- 아름다운재단 노란봉투 캠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사회학과

안 효 미

기부는 공동체를 향한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실천으로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민간영역의 자발적 활동을 촉진시키는 보충·보완적 자원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기부문화는 시민들의 기부참여율과 기부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정심에 기반한 자선적 기부에 편향되면서 공동체의 연대를 목적으로 제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부동기가 동정심의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의 연대로 점차 확장되고 있는 단초가 발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주로 자선적, 사회복지분야의 민간자원으로서 다뤄지는 기부행위가 점차 사회적 연대로서 확장되고 있다고 보고 2014년 아름다운재단에서 진행한 해고노동자 생계비 지원 및 법률개선을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그 변화의 동인과 속성을 파악한다.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한 기부자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먼저 사회적 연대로서 그 변화의 동인을 분석하고 들쭉, <노란봉투 캠페인>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특징과 기부참여에 영향을 준 내·외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특징 규정된 ‘수평적 관계’와 ‘공동의 책임감 기반’, ‘사회적 자본 형성’, ‘갈등해결지향’의 속성 여부를 통해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참여가 사회적 연대로서 이뤄진 것인지 분석한다.

<노란봉투 캠페인>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모금을 하는 비영리단체가 아닌 한 시민이 해고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십시일반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또한 아름다운재단에서도 ‘월급봉투’에 착안한 ‘노란봉투’ 이미지를 통해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구성하여 진행했다. 이는 조직화된 연대활동과 기부대상자의 고통을 전면으로 내세워 기부자와 기부대상자를 구분한 모금캠페인과의 차별점이다.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참여자들도 해고노동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내면화하면서 해고노동자를 수혜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동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같은 노동자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기부참여를 했다. 이러한 c사회적 연대에서의 기부참여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동질감(소속감)과 함께 힘을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어려움이 처했을 때 도와줄 이웃이 있다는 호혜와 신뢰를 형성했다.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참여는 해고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이뤄졌으며 ‘해고노동자들의 생계비 지원’과 ‘법률개선’같은 실질적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 확산’, ‘노동자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며 이뤄졌다. 이러한 <노란봉투 캠페인> 특성은 기부참여가 자선(시혜)이

아닌 사회적 연대로서 이뤄졌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는 그동안 기부의 주요 특징으로 여겨졌던 ‘동정심’ 기반의 ‘자선적 기부’와 ‘사회복지분야의 민간자원’의 역할에서 나아가 기부행위를 사회참여, 사회적 연대로서의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경제적 빈곤보다는 개인들이 과편화, 고립화로 인해 정서적 빈곤을 겪는 현대 사회에서는 물질적 자원의 기부도 필요하지만 정서적 지지와 연대로서의 기부 역시 필요하며 이뤄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노란봉투 캠페인>은 한 시민이 십시일반을 제안한 첫 시작과 진행과정에서 이미 사회적 연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캠페인으로 기부참여자 역시 사회적 연대로서 기부한 집단으로 이 연구 결과로만 기부가 사회적 연대로 가고 있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변화는 아니더라도 그 시발점으로는 볼 수 있으며, 특히 20대 이하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기존의 구조화된 연대행위에 대한 회의와 기부에 대한 인식과 동기가 보다 연대행위로 변화하고 있는 단초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기부에 대한 인식 및 동기의 세대별 차이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기부, 사회적 연대, 아름다운재단, 노란봉투 캠페인

도시사회학 석사학위 논문

사회적 연대로서의 기부행위

- 아름다운재단 노란봉투 캠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

Giving Behavior as Social Solidarity: Focused on
the Case of Yellow Envelope Campaign in 2014

2016년 2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사회학과

안 효 미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제2절 노란봉투 캠페인 개요	4
제3절 연구대상 및 방법	5
제2장 이론적 배경	10
제1절 기부의 개념과 동기	11
1. 기부의 개념	12
2. 기부의 동기	12
3. 기부동기에 관한 이론	12
4. 기부문화의 변화	15
제2절 연대의 개념과 의미 변화	16
1. 연대의 개념	16
2. 현대사회의 연대	18
제3장 기부목적의 변화	19
제1절 신자유주의의 위기에 대한 인식확산	19
1. 사회 전반적인 위기감과 연대의식	22
2. 자본과 기업에 대한 반감과 계급의식	23

제2절 새로운 형태의 연대 필요성	24
1. 제도화된 정치·연대에 대한 회의	29
2. 개인화되고 분산된 대중의 연대	33
제4장 사회적 연대로서의 기부행위	39
제1절 노란봉투 캠페인의 특징	39
1. 시민의 제안	40
2. 노란봉투에 담긴 내러티브	42
3. 기부를 통한 사회참여	45
제2절 사회적 연대로서의 기부행위	46
1. 수평적 관계의 기부행위	48
2. 공동의 책임감	56
3. 사회적 자본의 형성	61
4. 갈등 해결	68
제5장 결론	76
제1절 연구결과 요약	76
제2절 연구의 함의	80
참고문헌	81
Abstract	88

표 목차

<표 1-1> 소셜펀치 연도별 기부금 및 기부자 통계	3
<표 1-2> 설문문항구성	6
<표 1-3>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7
<표 1-4> 심층인터뷰 참여자 기초정보	9
<표 3-1> 노동시장 지표의 국제비교	20
<표 3-2> 노란봉투 캠페인 외 해고노동자 관련 활동 참여여부	25
<표 3-3> 노란봉투 캠페인 외 해고노동자 관련 활동 분야	27
<표 3-4> 노란봉투 캠페인 외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28
<표 3-5> 주요기관 신뢰도	30
<표 3-6> 분산된 대중의 기부참여 편지	35
<표 4-1>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에 영향을 미친 심리적 요인	47
<표 4-2>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에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적요인	47
<표 4-3>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에 영향을 미친 요인 순위	48
<표 4-4> 기부대상자인 해고노동자에 대한 관점	49
<표 4-5> 연령,교육,경제적 수준별 해고노동자에 대한 관점	51
<표 4-6> 참여요인에 따른 해고노동자에 대한 관점	52
<표 4-7> 사회적자본 형성 측정 문항	62
<표 4-8>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참여를 통한 사회적자본 형성	62
<표 4-9> 연령,교육,경제적 수준별 사회적자본 형성	64
<표 4-10> 갈등해결방식	69

<표 4-11>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 시 기대	70
<표 4-12> 연령,교육,경제적 수준별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 시 기대	71
<표 4-13> 참여요인별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 시 기대	72

그림 목차

<그림 1> 노란봉투 캠페인 온라인 모금페이지	43
<그림 2>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사용한 오프라인 홍보물	4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기부는 공동체를 향한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 안정과 결속을 위한 중요한 기제이다(강철희 외, 2010a). 기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민간영역의 자발적 활동을 촉진시키는 보충·보완적 자원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오랫동안 기부문화가 성장해 온 미국의 경우 기부행위가 이벤트성,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횟수, 강도, 지속성, 참여범위, 관련 기관의 다양성과 다수성, 활동의 다양성, 프로그램의 다변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시민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활동이자, 강력한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김용우, 2007).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는 등 기부에 대한 관심이 비영리 영역을 넘어 정부영역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강철희 외, 2010b). 이렇듯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며 기부 관련 제도적 정비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기부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비영리 조직들을 중심으로 점차 강화 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시민들의 기부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부규모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세청에서 파악한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은 2006년 4조 2,045억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3년에는 5조 5,842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종합소득자의 기부금액은 2006년 1조 1,408억원에서 2013년 2,472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기부금 총액은 2006년 5조 3,452억원에서 2013년 7조 8,314억원으로 7년간 약 1.5배 증가하였다. 현금

기부 횟수 역시 2011년 6.2회에서 2013년 6.5회로 0.3회 증가했다(보건복지부, 2014).

그러나 한국사회의 기부문화를 살펴보면 ARS기부와 같은 일회성의 자선, 그리고 이웃돕기 모금의 70%가 연말연시에 집중되는 등 특정한 사건이나 시기에만 참여하는 이벤트성이며(예종석, 2010; 이현우 외, 2011) 기부동기의 대부분은 동정심(63.5%), 비정기적(61.9%)으로 이뤄지는 등(아름다운재단, 2014) 공동체의 연대와 공존을 목적으로 제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부 연구에서 기부의 동기를 동정심 외에도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사회적 환원, 사회적 인정욕구, 자아성취, 관계적 측면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Ostrower, 1995; 김형용, 2013 재인용) 유독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동정심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기부문화가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의 연대가 아닌 대량상품으로 공급되고 있는 자선상품 교환시장에서의 도덕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을 찾아 돈을 내는 행위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형용, 2013)

하지만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지만 ‘돈’이 아닌 헌혈, 재능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부문화가 확산 중이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기부, 아이스버킷챌린지¹⁾와 같이 사회적관계망을 통한 기부 등 그 방식 역시 다양화 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 중이다. 최근 들어 개인들의 기부동기 및 분야도 동정심, 사회복지(자선사업)에서 공동체 의식, 사회변화(운동) 등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자선사업보다는, 환경, 여성, 인권, 빈민, 노동 등 민중운동, 인권사회운동 등 사회변화를 위한 투쟁, 캠페인, 프로젝트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온라인 기부플랫폼인 소셜펀치의 경우, 2011년 6,86,010원

1)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무계릭병)에 대한 관심 환기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한 사람이 지목받은 사람은 기부를 하거나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방식으로 이뤄진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2014년 여름에 시작되어 SNS를 통해 급격히 퍼져나가 하나의 유행이 되었다.

이었던 후원액이 2012년 79,421,851원, 2013년 190,146,746원, 2014년 180,223,446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참여한 기부자 또한 2011년 300명에서 2014년 4,890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펀치가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 기반은 시민 스스로 만들어야 하며, 기부도 참여임을 제시했듯, 사회변화를 위한 운동의 동력과 참여로서 기부행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표1-1> 소셜펀치 연도별 기부금 및 기부자 통계

연도	기부금	기부자
2011	6,862,010원	300명
2012	79,421,851원	2,425명
2013	190,146,746원	5,654명
2014	180,223,446원	4,890명
2015	137,610,102원	4,107명

*출처:소셜펀치 홈페이지 <https://www.socialfunch.org>

특히 지난 2014년 2월-5월 아름다운재단에서 진행한 해고노동자 생계비 지원 및 법률개선을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에서는 기존 한국사회의 기부문화에서 보여줬던 ‘동정심 기반’, ‘사회복지분야’의 시혜적인 기부가 아닌 기부자들이 ‘같은 노동자로서’, ‘연대하자’, ‘미안하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연대와 공감’을 강조하며 참여하는 등 기존의 개인기부와는 다른 특징들이 발견되었다. <노란봉투 캠페인>의 경우 사회복지나 자선적인 분야 외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4만 7천여명이 참가하여 14억원이 넘게 모금되는 등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기존 국내에서 주로 자선적, 사회복지분야의 민간자원으로서 다뤄지던 기부행

위가 사회적 연대로서 확장되고 있다고 보고, 아름다운재단의 <노란봉투 캠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기부행위의 연대적 성격과 그 변화의 동인을 분석 하고자 한다.

제2절 <노란봉투 캠페인> 개요

<노란봉투 캠페인>은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고통 받는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비 지원 및 법률 개선 활동을 위해 2014년 2월-5월 아름다운재단에서 진행한 모금캠페인이다. 경기도 용산에 사는 시민, 배춘환 씨가 언론사(시사인)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에게 가해진 47억원이라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십시일반을 제안하며 4만7천원을 보내오면서 시작되었다. 미담으로 끝날 것 같던 배춘환씨의 편지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아름다운재단에서 이를 <노란봉투 캠페인>이라는 모금캠페인으로 기획·진행하였다. 이후 가수 이효리씨의 참여로 더욱더 많은 대중적 관심이 확산되었고, 모금캠페인이 진행되는 112일동안 총 47,547명이 참여, 1,468,741,745원이 모아졌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손잡고’라는 시민모임이 출범하게 되었으며 모금된 돈은 ‘손잡고’를 통해 손배소로 고통 받는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비와 의료비지원뿐만 아니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일명 노란봉투법 입법화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란봉투 캠페인>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주로 ‘사회복지’, 특히 ‘빈곤’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금캠페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과 달리, 노동자들의 과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월급가압류라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고 참여하는 기부자의 대부분이 십시일반의 상징적인 금액인 4만7천원을 노란봉투에 담아 해고노동자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이나 ‘미안하다’, ‘연대하자’와 같은

메시지와 함께 보내는 등 기존의 기부행위에서 보이지 않았던 차별적인 특징이 나타났다.

제3절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에서 주로 자선적, 사회복지분야의 민간자원으로서 다뤄지던 기부행위가 사회적 연대로서의 행위로 확장되고 있다고 보고, 아름다운재단에서 진행한 해고노동자 생계비 지원 및 법률개선을 위한 모금캠페인인 <노란봉투 캠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기부행위의 연대적 성격과 변화의 동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한 기부자 중 임의로 3,500명을 선별하여, 2015년 9월 7일-10월 18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341개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 문항의 구성은 기부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연대로서의 행위로 변화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노란봉투 캠페인> 외 해고노동자와 관련된 활동여부와 분야를 물어 선호하는 유형과 기존의 연대활동 참여에 방해되는 요소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노란봉투 캠페인>의 기부행위가 사회적 연대로서의 행위였는지 분석하기 위해 연대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의 특성을 ‘기부 대상자와의 수평적 관계’, ‘공동의 책임감에 의한 행위’, ‘갈등해결지향 및 사회적 자본 형성’으로 조작적으로 정의 내리고 이를 <노란봉투 캠페인>에 맞게 구체화하였다. 설문문항의 구성과 분석내용은 <표 1-2>와 같다.

<표 1-2> 설문 문항 구성

구분	분석내용	측정 항목
기부목적 의 변화 이유	연대활동 참여 여부	노란봉투 캠페인 외 관련 활동 경험여부
	및 선호형태	노란봉투 캠페인 외 관련 활동 분야 - 캠페인, 서명/기부 또는 회원가입/집회참여/노조활동
	기존 연대활동의 방해요소	노란봉투 캠페인 전 관련 활동 참여하지 않는 이유
사회적 연대 성격	기부참여 영향요인	노란봉투캠페인 참여에 영향을 미친 심리적으로인 - 사회적 책임감/종교적 신념/동정심/공감/연대의식/죄책감
		노란봉투캠페인 참여에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적으로인 - 경제적 상황/세금혜택/대중매체/모범적기부자/지인권유/이슈자체
	수평적관계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에 영향을 미친 요인 - 공감/연대의식 중심
		기부대상자인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관점 - 일방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 / 호혜적 관계 / 함께 연대하는 동료
	공동의 책임감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에 영향을 미친 요인 - 사회적 책임감, 죄책감 중심
	사회적자본 형성	노란봉투캠페인에 참여하며 기대한 바 - 사회적 안전망, 신뢰, 공동체의식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에 영향을 미친 요인(순위) - 더 나은 사회에 대한 기대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사회적 안전망
갈등해결 지향	우리사회에서 바람직한 갈등해결 방식 - 정부주도/이해당사자간 해결/사회구성원 참여해결/회피	

설문응답자는 341명으로 남성 158명, 여성이 183명이었으며 연령대는 40대 144명, 30대 129명, 50대 이상 43명, 20대 이하 25명 순으로 30~40대가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자가 1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재학 이상이 126명으로 2번째로 많았다. 계층(경제적 수준)

은 중위계층 258명, 하위계층 55명, 상위층 28명으로 주로 중위계층에 속해 있었다. 정치성향은 진보가 212명, 중도 123명, 보수 6명이었다. 이는 설문에서 주로 응답한 사람들은 30~40대, 4년제 이상의 고학력, 중위계층, 진보성향으로 비교적 동질집단임을 의미한다. 이는 기부와 관련된 선행연구나 통계자료에서 주로 기부하는 연령층이 30~40대의 중산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노란봉투 캠페인>이 해고노동자들의 생계비 지원 및 법률 개선의 이슈를 다루고 있는 만큼 기부에 참여한 사람 대부분이 진보성향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표 1-3>와 같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22를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각 문항에 대한 응답경향과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항목별 빈도, 퍼센트를 산출하였다. 또한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참여에 영향을 미친 요인 등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을 산출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각 변수와의 교차분석을 통해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표 1-3>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구분	항목	N	%	구분	항목	N	%
성별	남	158	46.3	교육 수준	전문대이하	31	9.1
	여	183	53.7		4년제졸	184	54.0
연령대	20대이하	25	7.3		대학원재학 이상	126	37.0
	30대	129	37.8	계층	상	28	8.2
	40대	144	42.2		중	258	75.7
	50대이상	43	12.6		하	55	15.1
거주지	서울	153	45.0	정치 성향	진보	212	62.2
	광역시	51	15.0		중도	123	36.1
	시군구	132	38.0		보수	6	1.8
	해외	4	1.2	N=341(거주지의 경우, N=340)			

설문조사와 함께 <노란봉투 캠페인> 진행 시, 기부자들이 참여를 하며 남긴 온라인 소셜댓글과 편지를 수집하고, 심층인터뷰와 하였다. 심층인터뷰와 기부자들의 문서(소셜댓글,편지)는 설문조사의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심층인터뷰는 아름다운재단 실무자 2명과 기부자 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란봉투 캠페인>의 기획과 진행과정, 특히 기부를 요청할 때 사용한 메시지가 다른 모금캠페인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아름다운재단 실무자와 첫 제안자를 인터뷰하였다. 하지만 이들도 기부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실제 분석에서는 인터뷰 내용이 기부자로서 인용하기도 했다. 인터뷰 질문은 참여자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평소에 기부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 및 참여 하면서 기대한바 등을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통해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A와 B는 아름다운재단 실무자로 연구자가 직접 요청하였으며, 기부자 C와 D는 페이스북에서 연구의 목적을 간략하게 소개하여, 연구자의 페이스북 친구를 통해 모집하였다. E와 G는 연구자와의 개인적 친분을 통해 모집하였고, F와 H는 ‘노란봉투 캠페인’키워드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한 게시글이 있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집하였다. 심층인터뷰 참여자들은 주로 30~40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로 설문응답자와 마찬가지로 <노란봉투 캠페인>에 주로 참여한 집단으로 볼 수 있으나, 다양한 연령대와 사회경제적 수준의 집단을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들의 특성은 <표 1-4>와 같다. 순서는 면접을 진행한 날짜순이다. 인터뷰는 2015년 10월 연구자와 참여자가 일대일로 만나 개인 심층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인터뷰 장소는 참여자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카페, 학교 등)에서 실시하였으나, G와 H는 지방 거주와 시간 제약으로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려워 전화와 메신저를 사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각각의 인터뷰는 1시간 내외로 이뤄졌으며, 인터뷰를 하기에 앞서 참여자들에게 비밀보장과 녹음기 사용에 대해 안내하고 동의를 구해 인터뷰의 전 과정을 녹음하였다. 녹음한 자료를 필사본으로 옮겨 분석 자료를 마련하였다.

<표1-4> 심층인터뷰 참여자 기초정보

구분	이름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모집
실무자	A	여	30대	서울	대학 졸	직접 요청
	B	여	30대	서울	대학 졸	직접 요청
기부자	C	여	40대	시군구	대학 졸	페이스북
	D	여	40대	서울	대학원 재	페이스북
	E	여	30대	서울	대학원 재	직접 요청
	F	여	30대	시군구	대학원 수료	네이버 카페
	G	남	30대	서울	대학원 재	직접 요청
	H	여	40대	서울	대학 졸	네이버 카페

제2장 이론적 배경

아름다운재단의 <노란봉투 캠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연대로서의 기부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연구하기 위해서 첫째, 기부의 개념과 기부행위에 대한 동기 이론을 살펴보고, 둘째, ‘연대’의 개념과 특성과 관련된 이론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과 사회적 연대의 전반적인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들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제1절 기부의 개념 및 동기

1. 기부의 개념

기부는 사전적으로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국립국어원, 2015). 하지만 기부는 친구와 친지를 넘어서 자신도 모르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의를 확장하는 것으로(Payton, 1989; 장은영 2009 재인용) 기부자의 가치를 표현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다. 이는 단순한 자원 이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부는 사회문제와 사회변화에 참여하고 개입하는 수단이자 시민의식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이며 신뢰, 소속감, 사회통합과 같은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안효금, 2007).

영미권에서의 기부는 자선(charity)나 박애(philanthropy)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자선은 고대 유대인들에게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주로 종교적 의무로 가난한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애(loving kindness)를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박애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의 의무와 시민권의 개념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자선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용과 동정심과 같은 개인적인 차원의 관심이나 자비심에 근거한 행위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박애는 시민으로서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활동(development aid)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로 자선은 사전에 내포된 기본적 사회관계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간의 관계로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정호영, 2006). 반면에 박애는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인류라는 집합적 차원에서 인류의 발전 혹은 사회서비스를 위한 대규모의 기관 혹은 조직화된 기구에서 기부를 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김남숙, 2009). 따라서 박애는 기부된 자원이 극빈자나 개별적으로 확인된 욕구를 지닌 사람들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는 경우는 거의 없다(김정기 외, 2002).

이처럼 ‘자선적 기부’와 ‘박애적 기부’속의 사회적 관계와 행위의 의미가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물적 자원 유형이나, 자선적인 의미로 기부행위를 바라보면, 특별히 불행과 재난과 재해로 인해 가난하거나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엽게 여겨 도와주는 시혜로만 접근하거나 가진 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만을 강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물적 자원 유형이나 자선적 의미가 아닌 사회문제와 사회변화에 참여하고 개입하는 수단이자 시민의식을 표현할 수 있는 행위로 바라보고 시민참여로서, 사회적 연대로서의 관점으로 기부행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기부의 동기

동기는 인간이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근원, 즉 내적 상태로 어떻게 행위가 시작되고 유지되며, 방향을 정하고 그치게 되는가와 관련이 있다(백기복, 2000, 장은영, 2009 재인용). 따라서 기부 동기는 ‘인간이 기부 행위를 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부 동기는 내부(심리적)에서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려는 동기가 발생하는 내적 동기와 외부(환경적)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기부를 하려는 동기가 발생하는 외적 동기로 구분된다(장은영, 2009). 스스로의 동기부여에 의한 내적 동기는 주로 동정심과 이타심, 기부를 통해 돌아오는 심리적 행복감, 시민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 종교적 신념, 가족 전통, 기타 내적 이유 등으로 조사된다. 외적 동기는 경제적 여유, 경제적 혜택,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자극, 특별한 이유 없이 요청을 받는 경우, 주변적 상황 때문, 기타 외적 이유 등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과 보상에 의해 기부 동기가 생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강철희 외, 2009).

3. 기부동기 관련 이론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업, 종교, 학력, 소득, 성별,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함께 내·외적 요인, 즉 사람들의 인식과 관련된 변인들인 사회학적 변인, 경제적 변인, 심리적 변인들과 결합하여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기부동기 관련 이론 중 ‘친사회적행동이론’, ‘사회교환이론’, ‘자아확장이론’을 살펴보면, 기부행위와 사회적 연대와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친사회적행동이론

친사회적 행동이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가치 있다고 평가되는 행

동”으로 정의된다. 친사회적 행동을 보는 입장에는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과 동기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먼저 행동적 측면을 강조 입장에서 친사회적행동은 이타행동과 구별하며, 친사회적행동을 ‘행동의 동기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Wispe(1972)는 친사회적 행동의 유형으로 이타주의, 동정, 협동, 기부, 도와주기를 제시했고, Lau and Blake(1976) 또한 친사회적 행동의 주요 유형을 ‘개인이나 조직에 자신의 자원을 기부하기’, ‘다른 사람과 자신의 자원을 나누기’,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기개입’ 등으로 세분화하였다(홍은진, 2005). 반면에 동기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타성과 친사회적 행동을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한다. 친사회적 행동은 도와줄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외부의 강요 없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어떠한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수행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즉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게 되면 타인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이타적 동기가 생겨나게 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Shaffer, 1994; 조효진, 2006 재인용). 이러한 마음을 내적 동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부는 ‘자발적인 행위’로 현대 사회의 연대의 조건 중 하나인 ‘자발성’에 충족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노란봉투 캠페인> 참가자가 어떤 내적 요인으로 기부참여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2) 사회교환이론

사회교환이론은 외부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과 기부동기의 관계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사회교환이론에 의하면 사회는 지속적인 사회적 교환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개인구성원들의 총합으로 구성되며

(장은영, 2009), 개인구성원들은 행동에 있어서 주어진 상황이 지출하는 비용에 비하여 얼마만큼의 보상과 가치가 돌아오는지를 고려하여 행동양식을 결정한다(김주원, 2005). 사회교환이론에서는 보상과 비용이 사회적 규범과 가치 그리고 개인적 경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적이거나 결정적이기 보다 문화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주관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반드시 경제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최혜지, 2004). 사회적 인정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 혹은 사회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다. 사회교환이론에 근거하여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자가 기부행위를 통해 어떠한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았으며 어떤 보상에 대한 기대를 하며, 기부참여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의 이해관계 기반 한 목표 달성’을 보상으로 본다면, 기부를 사회적 연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3) 자아확장이론

자아확장이론은 개인이 성장과 성숙을 하면서 중요한 사람뿐만 아니라 중요한 단체와 기관, 집단, 사회 등까지도 포함시켜 자신의 스키마에 통합시키고, 그러한 자아확장 과정에서 인간의 가치와 신념, 태도 등이 근원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논의한다(김유나, 2002). 이러한 시각에서 기부행위를 분석하면, 기부는 사람들의 가치의 확장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으로 이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부자의 가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홍은진 2005). 즉 개인이 성장과 성숙을 하여 확장된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더 넓은 사회의 이익을 주고자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연대와 책임감, 기부를 설명하는데 하나의 이론모델로서 유용하며(김용우, 2007), 이 이론에 근거하여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참여에 어떤 가치가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수 있다.

4. 기부문화의 변화

사람들의 인식은 각기 다른 욕구, 문화적 배경, 과거의 경험, 동기 등에 의해 서로 다른 지각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기부행위에 있어서 개인기부자들이 서로 다른 역량과 내·외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각기 다른 지각적인 반응을 나타낸다(Sargent, 1990; 강철희, 2011 재인용). 그렇기 때문에 기부 동기 어느 특정한 요인에서만 비롯되지 않으며, 상황(사회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 기부를 다르게 인식한다.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경제적 환경에서 자란 젊은 세대들은 물질적인 가치(materialistic value)를 넘어서 보다 추상적이고 탈물질주의적 가치(post-materialistic value)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김옥, 2010). 프랑스에서 1979년-1999년 사이에 태어난, 소위 Y세대라고 일컫는 젊은 세대는 기부를 자선(charity)보다 공유(sharing)와 연대(solidarity)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이들은 죄책감이나 사회적 의무로서의 기부보다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즐겁고 효율적인 기부를 선호하였다(Urbain et al, 2013). 즉 기부를 빈곤한 사람들을 위한 물질적 자원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가치를 함께 나누고 연대하는 탈물질적인 가치로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기부관련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아름다운재단 기빙코리아와 서울서베이, 사회조사 데이터를 사용하며 전반적인 기부인식을 파악하고 있다. 너무 포괄적인 데이터다 보니 사회환경의 변화나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등의 요인에 따른 세부적인 개인기부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강철희, 2011). 그로 인해 기부 전체가 주로 동정심에 기반 한 자선 행위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기부자 집단을 보다 다양하게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부자 내에서 발생하는 상이한 행동들에 대해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부에 대한 인식과 동기가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아름다운재단의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참여자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연대의 개념과 의미 변화

1. 연대의 개념

일상적인 용어로 연대란 ‘행위자들이 함께 함’이라는 뜻을 지닌다. 여기에서 ‘함께 함’이란 단순히 시공간을 함께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선, 연대란 결속을 뜻하며 이런 의미에서 분열, 고립과 대립된다(강수택, 2013). 또한 연대는 생각을 함께 하는 것이고, 나아가 감정이나 의지를 함께 하는 것이며, 때때로 수고와 희생까지 함께 하는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이다(강수택, 2006). 르웰린-데이비스(Llewlyn-Davies)는 연대를 정의하기를 “연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특정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원칙에 대하여 함께 동의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일종의 상호부조나 지원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연대의 개념 속에는 매우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내용과 요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본래 연대개념은 프랑스의 법률 용어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연대 보증을 의미하는 프랑스 법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이다(Zoll, 2008a).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끝난 시점에서 연대는 새로운 의미로 전환했던 것으로 보인다. 출은 1877년에 발간한 에밀 리트레의 프랑스어 대사전이 연대보증의 법률적 의미와 함께 ‘둘 이상의 다수자 사이에 성립하는

상호책임'이라는 정의를 함께 수록하고 있던 사실을 적시하며 연대가 법적인 채무연대의 의미를 넘어 인간 문제의 해결과 고통의 해소에 대한 사회적 연대라는 의미로 완전히 진화한 것은 볼테르 담론과 아울러 프랑스 혁명 때 각종 정치담론에서 완성된다고 보고 있다(홍윤기, 2010).

이후 콩트, 뒤르켐, 퇴니스 등의 학자들에 의해서 '연대'는 사회학의 중심개념이 되었는데, 이들은 공동체가 붕괴되고 개인주의가 보편화된 근대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통합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을 공유하며 이들에게 연대는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가치'를 갖는 개념이 되었다.

이 밖에도 연대 개념은 19세기 중후반 활발했던 노동운동의 역사적 흔적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의 노동자와 사회주의자들에게 연대는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고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무기였다. 이들에게 연대는 투쟁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달성해야 할 이상사회의 원리이기도 하였다(서유석, 2013a). 20세기 후반 등장한 복지 국가 또한 연대 개념 형성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계기이다. 복지 국가는 자발적이든 강요에 의한 것이든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연대는 '형제애' 개념에 기초하여 물질적으로 궁핍한 개인과 집단을 위해서 재원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개념으로 활용된다(서유석, 2013b).

2. 현대사회의 연대

이와 같이 연대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면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다층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뒤르켐은 사회의 두 가지 발전 단계에 따라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로 구분했다. 기계적 연대의 기초는 사회적 상태의 동등함, 즉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동등함이나 이해관계에서 목표의 동등함일 것이다. 그리

고 분업의 발달로 인한 사회분화로 차이와 동등함이 혼합된 유기적 연대가 요구된다. 동질성과 집합체에 기반을 둔 강제적 연대 대신 다원성과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유연한 연대, 즉 유기적 연대가 새로 등장한다는 것이다(Durkheim, 민문홍 옮김, 2012) 이러한 뒤르켐의 용어를 빌려 출은 유기적 연대 개념을 오늘날 자본주의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오늘날 전개되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 특히 사회적 결속방식의 변화에 대해 주목하며 연대의 개인화, 다원화, 일상화 등을 강조했다(Zoll, 2008b; 서동훈, 2013 재인용).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강수택(2006)은 급속히 다원화되고 갈등하는 현대 시민사회의 특징에 부합하는 연대를 ‘시민적 연대’로 개념화 하고 시민적 연대의 중요한 특성으로 개인의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성찰적 연대, 타인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을 전제로 하는 연대, 열린 연대, 갈등 내재적이며 갈등에 유연한 연대이며, 이러한 시민적 연대의 조건으로서는 타자에 관한 관심과 도덕적 책임의식, 상호신뢰관계, 의사소통, 시민적 참여, 그리고 시민문화임을 제시하였다. 이승훈(2015)은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시민들의 연대는 동감과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여 자아와 타자가 서로 보편적 공공 이익에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연대이며, 이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타자를 포함시켜가는 열린 우리의 구성을 목표로 하는 연대라고 하였다. 즉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협력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구성해내고 이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연대이다.

앞서 논의한 오늘날의 연대의 개념과 특징을 요약하면, 개인화, 다원화된 사회의 변화에 맞게 과거 동질한 집단의 연대가 아니라 타자와의 열린 연대 즉 시민적 혹은 사회적 연대이다. 이러한 연대의 조건은 개인의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초해야 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과 도덕적 책임의식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가는 과정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대는 타인이나 타 집단에 물질적 도움이나 상징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행동으로 원칙적으로 상호성을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와 수혜자 사이의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로 성립되는 ‘자선적 기부’와 구별되며, 연대 관계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게 가치가 존중되는 수평적 관계가 형성된다(우승명, 2012).

제3장 기부 목적의 변화

제1절 신자유주의의 위기에 대한 인식 확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불안과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한국의 노동체제는 고용 불안이 일상화되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체제로 전환되었다. 유럽에서는 경제성장기에 복지국가의 건설과 노동기본권 보장이 전후황금기에 보장된 반면 한국은 군부독재 하에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기에 노동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했다. 1998년 정리해고법 도입을 기점으로 기존의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안정적이었던 대기업과 사무직에도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었다(허건, 2015). <표3-1>은 국제노동시장지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국의 실업률은 3.8%로 OECD 평균 8.5%에 비해 낮지만, 취업률은 63.3%로 OECD

평균인 64.6%보다 1.3% 낮다. 한국의 전반적 고용보호 수준은 1.9로 OECD 평균인 2.1에 비해 고용의 보호수준이 낮은 편이다. 정규직 고용보호는 2.4로 OECD 평균인 2.1보다 높지만, 스웨덴, 스페인, 일본보다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이 떨어진다.

<표3-1> 노동시장 지표의 국제 비교

구분	스웨덴	스페인	미국	일본	한국	OECD 평균	비고
<노동시장 지표>							
취업률(%)	72.7	59.4	66.7	70.1	63.3	64.6	15-64세 인구
실업률(%)	8.5	20.2	9.8	5.3	3.8	8.5	15-64세 노동력
노조조직률(%, 2009)	68.4	15.9	11.8	18.5	10.0	18.4	총피고용자 대비
<노동시장 경직성>							
전반적 고용보호	2.2	3.0	0.7	1.5	1.9	2.1	높은값 경직성
정규직 고용보호	2.9	2.5	0.2	1.9	2.4	2.1	
임시직 고용보호	0.9	3.5	0.3	1.0	1.4	1.8	
집단적 고규제	3.8	3.1	2.9	1.5	1.9	3.0	

*출처:OECD 통계, 허건(2015)에서 재인용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경험으로 사람들은 계급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사회 및 노동계급이 전반적으로 보수 추세이지만, 개인 단위 경험의 계급의식에 대한 영향을 보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을 경험한 노동자 즉 재취업자는 실직을 경험하지 않은 노동자인 생존자나 신

규취업자에 비해 계급적대의식과 반신자유주의의식 모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단위의 물질 조건 악화 경험이 계급의식을 강화한다는 것은 노동자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을 경험하거나, 노동조건 및 삶의 질 악화를 경험하게 되면 불만이 커지게 되면서 계급의식이 높아진다는 것이다(조돈문,2008).

또한 신자유주의는 사람들을 개인화되게 하고 고립되게 만들었다. 바우만은 현대사회를 ‘액체근대’라고 하였다. 인간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제공해주고 또 세상을 예측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을 주었던 과거의 제도, 전통과 관심, 그리고 유대 관계들이 다 녹아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마치 액체와 같이 선택하고 행동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족쇄와 사실이 근본적으로 녹아 버리고 있는 것이다. 자유화, 유연화, 유동성, 속도 등은 이런 액체근대를 특징짓는 표현들이다(Bauman, 2010; 손경미, 2013 재인용). 이런 시대에 삶의 더 많은 부분들은 개인화되고, 또 개인화 될수록 삶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증대되어 간다. 2015년 OECD 삶의 만족도 지수에 따르면, 한국인이 평가한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0점으로 OECD 평균(6.58점)보다 낮았으며,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였다. 특히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나 친척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 연계 지원’ 부문에서 한국은 72.37점으로 OECD 평균(88.02점)에 크게 못 미치며,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 사회적인 관계에서 개인이 섬처럼 고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화 과정과 그로 인한 불안정성은 개인의 원자화와 고립화를 낳기도 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연대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낳기도 한다. 사회가 근대화될수록 행위자(주체)는 자기 존재의 사회적 조건을 더 많이 반성하고 그리하여 그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Beck, 1998; 손경미, 2013 재인용). 따라서 개인화 과정으로 인

한 불안정성은 역설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연대와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며 나타나게 한다(이승훈, 2015).

심층인터뷰에서 참가자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를 하는 기업과 그것이 가능케 하는 현 법제도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일종의 연대의식이 발현되면서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하였음을 밝혔다.

1. 사회 전반적인 위기감과 연대의식

연대는 역설적으로 개인화로 인한 불안정성에서 기인한다. 불안정성은 사람들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연대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한다. 기부자 C는 ‘고용불안정’이나 ‘청년실업률 증가’ 등의 지표를 근거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안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런 불안한 상황은 언젠가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가지고 있었으며, 위기감과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개인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했음을 밝혔다.

우리 사회는 점점 나빠지고 있고 고용불안정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지표들만 보더라도 사회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쌍차²⁾라던가 세월호 이슈라던가..세월호는 또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책임

2) 쌍용자동차의 줄임말로 쌍용자동차 노동자, 관련 집회 및 이슈를 ‘쌍차’라고 관용적으로 줄임말로 사용된다.

있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안
그러면 나 몰라라 모른 척 하고 있고 내 일 아니니깐 그렇게 있으
면... 언젠가 그게 내 일이 될 수 있는 거고 내 주변 사람 일이 될 수
있는 건데...닥쳤을 때만 싸울거냐...그럼 세상을 어떻게 바꾸나..아님 세
상이 어떻게 더 좋아지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 기부자 C

즉 사회적 위기가 곧 자신 또는 주변 사람의 일이 될 수 있음을 인식
하게 되었고, 이러한 위기감과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의 책임감을 기반으로 모두가 함께 연대해야 함을 인식하면서 <노란봉투
캠페인>에 기부참여를 했다.

2. 자본과 기업에 대한 반감과 계급의식

신자유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경험은 자본과 기업에 대한 반감과
함께 계급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기부자 A와 C는 기업과 자본은‘막강한
강자’이며, 그 밖에 서 있는 자신과 해고노동자들을 ‘약한 집단’을 표현하
며, 일종의 계급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해고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금을 청구 하는 기업과 그들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되는 법제도에 대해
반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기부자 A는 ‘셋째를 키우기가 너무 막막하다’고
표현했으며, 기부자 C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기부자 G는‘기분 나
쁘다’라고 표현했다. 이는 불안함과 위기의식의 표현이면서 해고노동자들
의 문제를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인식하며 동질적 계급으로 인식하고 있
다고 해석된다.

어찌 됐든 약한 집단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막강하잖아요 법이라던가 자본이라던가..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 세상에서..셋째를 키우기가 너무 갑갑하더라구요. 난 애한테 뭐라고 말 하면서 키워야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 기부자 A

47억인가..소송비용이..그거를 선고받았을 때도 아..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거 같은거예요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하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 진짜..너무..강자 입장에 서있구나...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 - 기부자 C

어떻게 국가에서 저렇게 손배소를 할 수 있는지 그런것들을 허용하게 하는지 기분이 나빴고 하나는 기업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 기부자 G

이렇듯 해고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켜보면서 자신들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는 자본과 기업에 반감을 가지게 만들었다. 이런 위기의식과 자본과 기업에 대한 반감정은 스스로를 해고노동자와 동질한 계급, 약한 집단으로 규정하게 하고, 함께 맞서서 해결하기 위해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제2절 새로운 유형의 연대의 필요성

신자유주의에 대한 위기의식과 불안으로 연대와 공동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연대'의 형태가 과거와는 다르다. <노란봉투 캠페인> 외 해

고노동자 문제 관련 활동 참여 여부(표3-2)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341명 중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은 147명(43.1%), 참여경험이 없는 사람이 194명(56.9%)으로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해고노동자 문제 관련 활동 참여 하는 것에 심리적·물리적 장벽이 있었던 것에 반해 <노란봉투 캠페인>은 기존의 관련 활동 참여에 장벽을 느끼는 이들도 참여하게 만들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관련활동 참여여부를 연령/교육/경제적 수준별로 교차분석 한 결과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20대 이하와 3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참여 경험이 적었으며, 50대 이상 집단과는 30%p이상 차이가 났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들이 선호하거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형식의 연대가 필요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3-2> 노란봉투 캠페인 외 해고노동자 관련 활동 참여 여부

전체		연령대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전문대 이하	4년제 졸	대학원 재학 이상	하층	중층	상층
N	341	25	129	144	43	31	184	126	55	258	28
있다	43.1	36.0	36.4	43.8	65.1	41.9	44.0	42.1	47.3	41.9	46.4
없다	56.9	64.0	63.6	56.3	34.9	58.1	56.0	57.9	52.7	58.1	53.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11.374				1.36			.679		
df		3				2			2		
p		.010				.934			.712		

그리고 <노란봉투 캠페인> 외 참여한 관련 활동분야(표3-3)를 살펴보면, ‘캠페인/서명활동’이 전체 응답수 283건 중 124건(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체 기부 또는 회원가입(24.0%)’ ‘집회 참여(22.0%)’, ‘노조 활동(10.2%)’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연대행위라고 생각되는 ‘집회 참여’가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4가지 방법 중 3번째 순위로 나타났으며, <노란봉투 캠페인>이 해고노동자라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노조활동에 가장 적게 참여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기존의 조직적인 연대 방식이 아니라 ‘캠페인/서명’, ‘기부’와 같이 개인화된 연대 방식을 선호함을 추정할 수 있다.

연령, 교육,경제적 수준별로 교차분석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캠페인/서명 활동은 20대 이하, 전문대 이하, 하층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가 많았으며 관련 단체 기부 및 회원가입은 30대, 대학원이상, 하층집단이 집회참여는 50대 이상, 4년제졸, 상층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참여가 많았다. 이를 통해 주로 하층집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양한 연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20대, 저학력, 하층집단은 캠페인/서명활동과 같은 비교적 부담이 적은 연대활동에 참여하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30대, 고학력, 상층집단은 기부 또는 집회참여와 같은 형태의 연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알 수 있다.

<표3-3> 노란봉투 캠페인 외 해고노동자 문제 관련 활동 분야(복수응답)

전체	연령대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전문대 이하	4년제 졸	대학원 재학 이상	하층	중층	상층	
N	283	9	101	131	42	24	167	92	54	210	19
캠페인/서명	43.8	66.7	44.6	40.5	47.6	58.3	43.0	41.2	44.4	44.3	36.8
기부/회원가입	24.0	11.1	26.7	24.4	19.0	12.5	24.0	27.2	27.8	24.3	10.5
집회	22.0	22.2	18.8	21.4	31.0	16.7	23.4	20.7	14.8	21.9	42.2
노조 활동	10.2	0.0	9.9	13.7	2.4	12.5	9.6	10.9	13.0	9.5	10.5
합계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노란봉투 캠페인> 외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참여방법을 몰라서’가 42.8%로 가장 높았으며, ‘시간·경제적 여유가 부족해서’가 28.3%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별로 교차분석 했을 때 연령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30,40대는 ‘참여방법을 몰라서’, 20대 이하와 50대 이상은 ‘시간·경제적 여유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이는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30,40대는 점점 심화되는 경쟁사회 속에서 개인화, 분산되고 고립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없거나, 기존의 연대 방식 중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20대 이하는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50대 이상은 은퇴 이후 불안한 노후 등으로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0대 이하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참여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기존의 집회와 같은 연대 방식을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기존의 집

회와 같은 연대 방식이 젊은 세대에게 신뢰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런 이유로 새로운 방식의 연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3-4> 노란봉투 캠페인 외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전체	연령대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전문대 이하	4년제 졸	대학원 재학 이상	하층	중층	상층
사례수 (N)	180	12	75	79	14	20	96	64	27	137	16
참여 방법을 몰라서	42.8	25.0	52.0	40.5	21.4	30.0	42.7	46.9	22.2	46.7	43.8
시간/경제적 여유 부족	28.3	58.3	20.0	27.8	50.0	40.0	25.0	29.7	48.1	24.1	31.3
참여 해도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지 않아서	26.1	.0	28.0	27.8	28.6	30.0	28.1	21.9	25.9	26.3	25.0
지나치게 정치적이어서	2.8	16.7	.0	3.8	.0	.0	4.2	1.6	3.7	2.9	.0
<합계>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χ^2		26.402				4.661			8.375		
df		9				6			6		
p		.002				.558			.212		

1. 제도화된 정치·연대에 대한 회의

과거에는 흔히 연대행위를 떠올릴 때면 어떤 구체화된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그 안에 소속되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집회에서 사용하는 투쟁적 성격의 구호에 거부감과 거리감을 느끼며, 사회운동이나 조직으로서의 연대에 대한 대중의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었다. 실제로 촛불집회에 모인 대중은 운동권의 깃발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기도 한다. 어떤 정치세력이나 운동단체도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이승욱, 2015). 특히 <노란봉투 캠페인> 이전에 기존의 연대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표3-4) 중 ‘지나치게 정치적이어서’란 응답, 즉 기존의 조직화된 연대행위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20대 이하 집단 내에서 높은 비율(16.7%)로 나타난 점은 기존의 연대방식이 바뀔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노조의 경우, 사람들의 거부감과 저항감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별 노조체제’ 모순이 드러나면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일관적으로 집행하는 데에서 무능력함(노중기, 2009)이 나타났고 자본과 정부의 헤게모니적 배제전략에 의해 ‘귀족노조’로 비난받게 되었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비노조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정규직 이기주의’로 비판받으며 오늘날 노조의 사회적 신뢰도는 <표3-5>에서 보듯이 2010년 57%로 국회를 제외한 주요 사회기관 중에서 최저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노조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조직에 의해서 주도되는 노동운동에 대한 시민의 지지가 높을 수 없었고, 노동운동은 점차 사회적 연대로부터 고립되게 만들었다.

<표3-5> 주요기관 신뢰도

년도	대기업	노동조합	신문사	언론사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청와대	시민단체
2005	70	59	68	76	48	56	21	55	78
2006	75	61	70	77	52	58	26	59	76
2007	74	58	71	79	53	58	25	56	76
2008	70	60	62	76	51	55	27	50	72
2009	71	60	59	75	52	56	22	53	75
2010	75	57	63	73	58	60	29	59	71

*출처 : 한국사회종합조사 2003-2010, 허건(2015) 재인용

1) 제도권 정치에 대한 회의

이처럼 기존의 정치세력, 운동단체와 같은 제도권 정치가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대변하지 못함에 따른 회의는 하위정치가 활성화되게 만들었다. 시민사회 또는 개인 수준에서의 운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기부자 E는 과거 집회와 같은 조직적인 연대활동에 종종 참여를 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어떤 집회에서 정치인이 나와서 선거에 나간다고 광고하는 것을 보면서 집회가 '특정 집단 혹은 정치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리로 전락되었다고 느꼈으며 그 이후 집회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 했다.

집회가 특정이익집단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경우도 있었고...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어떤 집회에 나가서 후회 했던 거 같아 특정 정치인이 나와서 나 선거 나간다고 하고 광고를 하고...그런 걸 겪고 나서 되게 날씨가 안 좋은 날이었는데 이 추운데 여기까지 나왔는데...그런 일이 있었고....잘 나가지는 않는데..- 기부자 E

기부자 E는 집회가 사회문제해결보다는 정치인의 선거운동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특정집단이나 정치인 즉 정치세력이 집회에서 다루고 있던 사회문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에 따라 조직적 연대활동보다는 개인적인 활동에 더욱 참여하게 되었다.

2) 노조에 대한 편견

언론 등에 비취지는 모습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노조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낮은 신뢰도는 사람들이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가 아닌 다른 방식을 찾도록 한다.

심층인터뷰에서 아름다운재단 실무자 B와 기부자 C, E 역시 노조와 노동운동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아름다운재단 실무자 B는 노동운동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었으며, 스스로를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귀족노조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 하였다. 기부자 C는 노조뿐만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고 했다. 기부자 C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노동자’가 아니라 ‘월급쟁이’ 또는 ‘회사원’이라고 생각했으며, 노동자는 빨간 띠를 두르고 과업을 하는 불편한 존재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하며 노동자와 노동운동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자신과 관계없는 다른 계급으로 규정짓고 있었다.

저는 노동운동에 대해 일단 아무런 지식이 없었고 일반적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귀족노조..그 프레임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고 노조에 대한 호감은 분명 없었다라고 인정을 했었어요. 노동운동에 잘 알지도 못했었고 너무나 파괴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름다운재단 실무자 B

노동이라는 말...제가 노동..파업 이런 거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견해를 가지는 사람이었을 거 같아요. 노동이란 말도 들으면 우리 남편도 월급 받는 사람이지만 노동자라고 생각안하고 월급쟁이..회사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노동자는 일단 빨간 띠를 두르는 거고 파업하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권리를 잃어갔을 때 나중에 그 파급효과가 나한테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 했던거죠. - 기부자 C

기부자 E의 경우는 오히려 많은 정보를 접함으로써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기부자 E는 대학생 때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던 중 노조로 인한 핍박을 받는 또 다른 노동자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접하면서 거대한 노조에 속한 노동자들이 피해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노조에 속하지 못한 더 약한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나의 기억을 더 들어가면 대학교 때 밥꽃냥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적이 있어..밥꽃냥이 뭐냐면 현대자동차노조에게 밥을 해주는 어머니들이 노조에게 핍박 받는 내용이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지 막연하게 해고노동자라던가 노조가 마이너, 완전 피해자란 생각을 안했던거지 - 기부자 E

이처럼 노조와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노동문제가 자신의 일이 아닌 전혀 다른 계급(집단)의 문제라고 구분 짓게 하거나 노동조합이나 이들의 노동운동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또한 귀족노조와 같은 노조에 대한 편견으로 그들의 주장을 사람들이

외면하게끔 만든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더 다른 시민사회 혹은 개인수준에서의 연대방식을 찾게 되는 것이다.

2. 개인화되고 분산된 대중의 연대

연대방식의 변화는 사람들의 생활조건들이 변화되어 왔다는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사회가 서비스 사회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현대사회는 제조업, 공업 중심의 사회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해왔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중심이동은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방식, 노사관계, 가족생활, 여가활동 등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서비스 사회화는 중소기업의 비중 증대에 따른 서비스노동자들의 조직률 저하, 비정규직의 증가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분산화, 파편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 사회의 경우 2005년을 기준으로 보면 서비스산업 노동자가 전체 산업의 66.6%를 차지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조직률은 10.9%로 광공업 부분 조직률 17.4%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무노조로 인한 미가입율이 77.2%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60%에 달하고 있다(윤정향, 2008, 정태석 2009 재인용). 이처럼 한국사회의 서비스사회로의 이행은 일자리의 계층화, 이동의 심화, 경쟁의 심화 등에 따른 노동시장의 개인화의 심화를 수반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에 따른 비정규직의 증대 역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켜 노동자들을 개별화, 분산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대중들은 노동과 일상생활에서 분산된 개인들로서 개인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조건에서 분산된 대중은 동일한 집단이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간의 결합, 전통적인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에서 형성되어 온 조직된 노동자, 단체를 중심의 조직화된 연계 기반의 연대에 참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은 일

시적인 결집이나 서로 간의 지지의 형태를 띠는 연대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선호하게 된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노란봉투 캠페인> 외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연령, 교육, 경제적 수준 별로 교차분석(표3-4) 했을 때, 한창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30대(52%), 대학원 재학이상(46.9%), 중산층(46.7%)이 ‘참여방법을 몰라서’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경쟁의 심화 등으로 현대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분산된 개인으로 개인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 행위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자들이 남긴 소셜댓글과 기부에 참여하며 보내온 편지에서도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참여자들은 노동자라는 공통된 이해관계와 계급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전업주부, 그리고 해외 거주자와 같이 국내의 어떠한 조직된 형태의 연대에 참여할 수 없는 분산된 대중들의 참여 역시 많았다(표3-6).

<표 3-6> 분산된 대중(비정규직, 전업주부 등)의 기부참여 편지

비정규직

저는 15년차 방송작가입니다. 비정규직의 설움 15년이죠.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보다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며 마음 하나 보탬니다.

전업주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양,과천,의왕,군포에 사는 엄마들의 모임입니다. (생략) 저희는 전업주부들이고 남편의 월급으로 아이들과 살아가고 있기에 이 노란봉투의 소중함을 매달 느끼며 감사하고 지냅니다. 그래서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가정이 걱정되고 또 그 가정의 아이들이 염려되어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해외거주자

35년 전 50달러를 손에 들고서 이 땅에 건너와 아내를 만나고 세 아이를 키워가며 거의 10년을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살림을 일구었지요. 노동자들의 유일한 권리인 단체 교섭과 파업을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사회가 내 조국이라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학생(취업준비생)

오래전부터 노란봉투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백수휴학생이기에 마음에만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시사인에서 4700원씩 10명의 학생이 모여 노란봉투를 전달한 것을 보고 저도 함께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화되고 분산된 대중은 집회나 조직화된 집단에 참여하여 연대하는 방식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다. 개인화된 사회에서는 자율성이 보장된 만큼 개인이 짊어지고 가야할 책임 역시 커진다. 더욱이 신자유주의적 인 환경에서의 직업, 가족, 교육 등에서의 요구는 끝이 없다. 신자유주의의 무한한 요구는 ‘투쟁영역’을 모든 생활영역으로 “확장”한다(전상진 2009). 확장된 투쟁영역에서의 영속적인 경쟁은 언제 탈락할 수 있다는 위협을 일반화하고 일상화한다. 고용관계에서의 불안정은 고용관계를 유연하게 만들어 피고용자들 간의 경쟁을 강화했다.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계급, 지역, 세대)에 근거한 경쟁은 개인적인 경쟁으로 변화되었으며(전상진, 2009),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

는 집회나 구조화된 집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 캠페인> 외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표3-4) 중 ‘시간·경제적 여유가 부족해서’가 20대 이하(58.3%), 전문대 이하(40%), 하층(48.1%)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것은 실제로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20대와 하위층은 집회나 조직적인 연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응답이 가장 많았던 ‘참여 방법을 몰라서(42.8%)’ 역시 개인화되고 분산됨에 따른 실질적인 참여 정보 부족일 수 있으나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력이 되는 참여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기타 의견에서도 ‘단체 활동을 싫어함’과 같이 조직된 형태의 연대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거나 ‘연대란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외롭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과 같이 조직된 연대 방식뿐만 아니라 서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방식 등 다양한 연대 방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신청 쓸 사회문제가 너무 많아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없음’, ‘애들이 어려 다른데 관심가질 여유가 없음’과 같이 현재 기존의 연대 방식에 참여하는 것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 기존의 연대방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처럼 개인화되고 분산된 대중은 기존의 연대방식인 집회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여에 대해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갖게 된다. 심층인터뷰의 참여자들도 기존의 연대방식에 참여하는 것에 경제적, 시간적 부담감은 물론 심리적 부담감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기부자 D는 ‘야근 등으로 인해 주말에 진행되는 집회에 참여할 에너지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시간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일상의 피로감은

기존 연대방식과 심리적으로 멀어지게 한다. 기부자 F는 해고노동자와 관련된 뉴스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며 정보를 얻지만, 세 명의 자녀양육 등으로 인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개인의 경제활동과 가정 생활로 인해 기존의 조직된 형태의 연대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녹록치 않음을 밝혔다.

에너지가 회사일을 하다보면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주말에 거기에 시위하러 가고 그렇게 잘 안되는거죠.- 기부자 D

간간히 뉴스를 접하고 그런 글을 찾아보는 성향이기 때문에..관련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돕는 루트는... 돕고 싶어도 무작정 찾아가서 몸으로 돕는다는 사람도 있지만 애가 셋이고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돕는 거는 한계가 있고...- 기부자 F

기부자 C는‘계속 관련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은 감정적인 부담이 된다.’며 오랜 시간 참여하고 관여해야 하는 형태의 연대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부담됨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기부자 C는 ‘이슈를 알았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사는 것이 제일 좋은 사회참여라고 생각한다.’며 <노란봉투 캠페인>과 같은 기부 형식의 연대활동을 선호함을 이야기했다.

제가 그 이후에 그 소식을 계속 듣게 되는 건 일상에서 굉장히 감정적 부담이 돼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없기 때문에 폐북 좋아요 누르는거 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무기력하지만..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돈만 내놓고 땀. 이게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그 짐을 장기간 짊어지고 가요. 내가 이슈를 알았을 때 그 때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사는 것이 제일 좋은 사회참여라고 생각해요. -기부자 C

이처럼 개인이 짊어지고 가야 할 책임 역시 커지고, 신자유주의적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기존의 조직화되고, 오랜 시간 참여해야 하는 연대활동에는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진다. 따라서 이들은 부담이 되지 않은 선에서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연대의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고, 그 방식으로 <노란봉투 캠페인>과 같은 기부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2) SNS 활용 등 다양한 연대방식

이와 같이 개인화되고 분산된 대중은 조직화된 연대행위에 부담을 느끼는 한편 자신들의 생활 안에서 할 수 있는 연대 방식을 찾게 되었다. 기부자 D는 ‘과거에는 발 벗고 나가서 같이 싸우러 가는 것(집회)이 연대 행위’라면 ‘요즘은 SNS에서 (세월호 관련) 노란리본을 다는 액션이라던가 쌍용자동차를 사지 않는 등의 소비 행위’도 연대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대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 같으면 발 벗고 나서 같이 싸우러 간다거나 이런 게 가장 포괄한 연대의 행위라고 했다면 요즘은 SNS가 많아지면서 SNS를 통해서 자기주장이나 표현을 하잖아요. 노란리본을 페이스북 아이콘으로 한다거나 카톡에 한다거나.. 어떤 것들에 대한 액션을...지금은 방식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옳다그르다 말하기는 그런 거 같고 저는..뭐...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움직이는 거 같아요. 꼭 돈만 낸다거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하잖아요 소비를 할 때도 그런 것과 쌍용자동차는 안 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연대를 하거나 사회를 바꾸는 방식은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부각되지 않거나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사회를 변화시키는 행동이란 것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기부자 D

인터넷 활용과 소셜미디어가 확대되면서 느슨한 그룹들 간의 공유의 가치와 활동이 더욱 부각되면서 사람들은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누르는 것과 같은 연대의 새로운 방식에 긍정적이며 적극 참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연대행위에 익숙해져 있던 대중들은 집회와 같은 조직적인 연대행위가 아닌 기부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연대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하게 된다.

제4장 노란봉투캠페인 기부참여와 사회적 연대

제1절 노란봉투 캠페인의 특징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사회복지’, 특히 ‘빈곤’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금캠페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하지만 <노란봉투 캠페인>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소송과 월급가압류라는 사회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참

여하는 기부자들은 상징적인 금액인 4만 7천원-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에게 청구된 손해배상금 47억원의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을 노란봉투에 담아 기부했다. 노란봉투에는 기부금뿐만 아니라 해고노동자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이나 ‘미안하다’, ‘연대하자’를 적어내는 등 기존의 기부행위에서 보이지 않았던 차별적인 특징이 있었다.

이를 아름다운재단 공식 블로그에 기록된 <노란봉투 캠페인> 진행과정을 수집하고, 아름다운재단 담당 실무자와 첫 제안자인 배춘환씨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실제로 다른 모금캠페인과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분석했다

1. 시민의 제안

<노란봉투 캠페인>은 아름다운재단에서 처음부터 기획한 것이 아니라 경기 용인에 사는 한 시민인 배춘환씨가 2013년 12월 말, 언론사인 시사인에 해고노동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 하는 것에 대한 부조리함과 이를 4만7천원씩 10만명이 함께 해결하면 어떨것냐는 편지와 함께 4만7천원을 보냈고, 이를 시사인이 아름다운재단에 제안하며 시작되었다. 그동안 비영리단체에서 모금캠페인을 기획하고 시민들에게 참여를 제안한 것과 달리 시민이 제안을 했고, 아름다운재단에서는 이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들이 동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

해고 노동자에게 47억원을 손해배상 하라는 이 나라에서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해서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 보냅니다. 47억원... 뭐 듣도 보도 못한 돈이라 여러 번 계산기를 두들겨봤더니 4만7천원씩 10만명이면 되더라고요. 나머지 9만9999명분은 제가 또 톱툰이 보내드리든가 다른 9만9999명이 계시길 희망할 뿐입니다. 이자가 한 시간에 10만7000원이라고 하니, 참 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시작이 반이라고...- 시사인에 보내온 배춘환씨의 편지 발췌

또한 배춘환씨가 시사인에 4만7천원과 함께 편지를 보내면서 단지 해고노동자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자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하다고 느끼며 스스로 작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며 이를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4만7천원씩 10만명'이라는 십시일반을 제안했다는 것에서 단순히 자원(돈)을 주는 행위와는 달랐다. 배춘환씨는 심층인터뷰에서도 자신이 보낸 4만7천원은 기부가 아니었으며, 단지, 해고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부조리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저는 47억을 그 사람들에게 줄 순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응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집요하게 4만7천원씩 꾸준히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계속...아예 모금이라고 생각을 안했으니깐..모금단체에 보내고 그러지 않았던 거죠. 기부라고 생각 안하고 화의 표현이었어요.. 4만7천원..이 사실에 너무 화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은...상징적 표현이었지. -배춘환

단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부과된 손해배상금 4억7천만원을 모아서 주자고 했다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자를 돕는 기부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4만7천원은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노동자의 과업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었으며, 그 불만의 표출을 시민이 했다는 점이 자선적 기부와 다르다. 아름다운재단 실무자 A 역시 심층인터뷰에서 몇 년 동안 풀리지 않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민의 제안을 모금기관으로서의 사명감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만 했다고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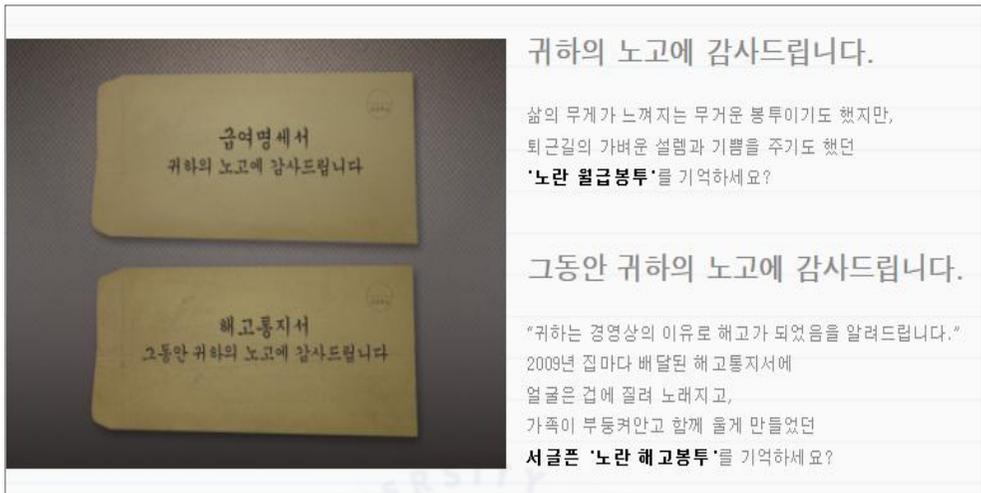
촉발자는 결국 시민 한 명이었고 시민의 이야기부터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공감하게 풀어 나갈까부터 시작한 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해묵은 이슈였잖아요. 98년에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걸 굉장히 주관적인데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몇 년 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인데 계속 희생자는 나오니깐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어떤 시민이 문제제기를 했으면 모금기관이라면 당연히 받아서 잘 알려야 한다는 약간의 사명감으로 시작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름다운재단 실무자 A

즉 <노란봉투캠페인>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부’의 성격보다 시민의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며 문제에 대해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주위사람들에게도 제안하는 ‘사회참여’이자, ‘해고노동자에 대한 응원’의 성격 즉 사회적 연대로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2. 노란봉투에 담긴 내러티브

<노란봉투 캠페인>은 해고노동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것보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법제도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부각시키는 메시지로 모금캠페인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기부를 요청하는 모금캠페인은 주로 기부대상자로 규정되는 특정한 이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알리는 메시지를 주로 담고 있는 것과 차별적이다.

<그림 1. 노란봉투 캠페인 온라인 모금 페이지>



*출처: 아름다운재단 <http://www.beautifulfund.org>

<그림 2.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사용한 오프라인 홍보물>



*출처: 아름다운재단 공식블로그 <http://bfpeople.tistory.com>

아름다운재단 실무자 A는 <노란봉투 캠페인> 기획 시 가장 주안점으로 둔 것은 ‘자기 이야기’라고 밝혔다. 아름다운재단 실무자 A는 기존에 노동운동은 부정적인 인식과 집회양식에 대한 거리감과 부정적인 인식(편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멀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월급봉투’에서 착안한 ‘노란봉투’ 이미지를 캠페인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해고노동자의 문제를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처할 수 있는 문제로 느낄 수 있도록 모금캠페인을 구성했다.

모금 설계를 할 때는 상처나 노동자 이야기로 직접적으로 가면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몇 년 동안 보여줬던 거와 다를 바 없을 거 같으니깐.....좀 더 자기 얘기로 풀어낼 수 있는 마케팅이 뭘까 고민하던 끝에 나온 게 결국 노란봉투였던 거거든요. 월급봉투, 우리 시대에 먹힐 수 있는.그런.감성적으로 풀어낸 게. 결과물이 노란봉투이고 그 타이틀을 가지고 가면서.....노란봉투라는 이미지가 컸던 것 같아요 그냥 다짜고짜 순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또 어렵다고 생각했을 텐데 예전에 월급 받았던 그 노란봉투가 해고통지서로 왔고 다시 따뜻한 노란봉투로 돌려주자.—아름다운재단 실무자 A

그 결과 기존의 노동운동이 대중들의 외면을 받았던 것과 달리 <노란봉투 캠페인>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 특히 상징적인 금액인 4만7천원을 기부하면서 해고노동자와 비슷한 경험이나 노동자로서 겪는 어려움 등 자신의 사연이 담긴 편지를 아름다운재단에 보내왔다. 이렇게 보내진 노란봉투는 1,422통, 기부금은 총 64,160,000원이었다.

3. 기부를 통한 사회참여

아름다운재단은 <노란봉투 캠페인>을 통해 해고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몰랐던 사람들에게 기부를 통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고 사회를 바꾸는 방법 중 하나로 기부가 있음을 알리려고 했다. 그래서 총 3차에 걸쳐 진행한 <노란봉투 캠페인>의 1,2차 모금 목표는 해고노동자들의 생계비 지원이었으나, 3차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개선까지 모금의 목표로 잡고 진행했다.

노동계 쪽은 이미 이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깐 반대급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몰랐던 사람들을 이 캠페인으로 끌어들이자 그래서 기부.우리가 사회를 바꾸는 방법에는 시위참여를 하거나 SS 등 여러 활동들이 있지만 기부로 참여했을 때 그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자가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쪽에 전혀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던 사람들에게 손쉽게 기부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에게.....1차적으로 생계비 지원이었지만 우리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률개선까지 가야 한다고 보고 있었고 - 아름다운재단 A

<노란봉투 캠페인>의 모금은 순배·가압률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인 ‘손잡고(순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를 통해 손해배상·가압류 중인 329가구에 긴급생계의료비로, 또한 그 실정을 널리 전달하기 위해 문화 활동과 연구 분야로도 지원됐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의 입법화를 위해 사용되면서 실제로 기부를 통해 사회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따라서 <노란봉투 캠페인>은 모금기관이 아닌 한 시민이 손배소의 부담함을 이야기하며 십시일반을 제안하며 시작됐고, 이를 아름다운재단에서 ‘월급봉투’에서 착안하여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자기의 일, 모두의 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기획하고 해고노동자들의 생계비 지원뿐만 아니라 법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기부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는 것에서 그 시작과 캠페인 구성 자체에서 사회적 연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사회적 연대로서의 기부행위

기부행동과 관련된 동기는 다양하다. 내적 동기는 개인 스스로의 동정심과 이타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만족감과 행복감을 경험하기 위한 동기로 정의할 수 있다. 외적 동기는 기부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인정, 소속감, 관계혜택 등을 경험하기 위한 동기로 정의할 수 있다.

<노란봉투 캠페인>의 기부참여에 영향을 미친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내적 동기 즉 심리적 요인으로 사회적 책임감, 종교적 신념, 동정심, 개인적 행복감, 연대의식, 죄책감, 공감으로 항목을 구성하였고, 외적 동기 즉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경제적 여유, 세제혜택, 지인권유, 대중매체, 모범적기부자, 해고노동자 이슈자체로 항목을 구성하여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내적 동기로는 ‘사회적 책임감’이 평균 3.5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공감(3.52), 연대의식(3.41), 개인적 행복감(2.56), 죄책감(2.44), 동정심(2.24), 종교적 신념(1.52) 순으로 나타났다(표4-1). 외적 동기는 ‘해고노동자 이슈 자체’가 평균 3.3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중매체(2.56), 모범적 기부자(2.64), 경제적 여유(2.32), 세제혜택(1.58), 지인권유(1.43)순으로 나타났다(표4-2). 내·외적동기요인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회

적 책임감'이며, '공감', '연대의식', '해고노동자 이슈자체' '대중매체' '개인적 행복감', '모범적 기부자', '죄책감', '경제적 여유', '동정심', '세제혜택', '종교적 신념' 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체로 외적 요인보다 내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기존에 기부동기에 관한 조사에서 국내 기부자들의 기부의 가장 큰 동기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함(통계청, 2013)', '동정심(아름다운재단, 2014)'인 것과 달리 <노란봉투 캠페인>의 기부자는 '동정심'의 영향이 작았다.

<표4-1>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에 영향을 미친 심리적 요인

	사회적 책임감	종교적 신념	동정심	개인적 행복감	연대의식	죄책감	공감
평균	3.56	1.52	2.24	2.56	3.41	2.44	3.52

* 4점 척도의 값임

<표4-2>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에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적 요인

	경제적 여유	세제혜택	지인권유	대중매체	모범적 기부자	해고노동자 이슈자체
평균	2.32	1.58	1.43	2.69	2.63	3.39

* 4점 척도의 값임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에 영향을 미친 심리적 요인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해고노동자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연민', '해고노동자와 비슷한 경험', '노동자 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미안함'중 참여에 영향을 미친 순서대로 응답하게 한 결과, 설문응답자 341명 중 189명(55.4%)이 '노동자 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

동체 의식'을 1순위로 응답했다. 1, 2순위를 합한 결과 역시 '노동자 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이 2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해고노동자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연민(236건)',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미안함(128건)', '해고노동자와 비슷한 경험(28건)' 순으로 나타났다(표4-3).

<표4-3>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에 영향을 미친 요인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에 영향을 미친 요인	1순위		2순위		1+2순위	
	N	%	N	%	N	%
노동자 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의식	189	55.4	84	25.9	273	41.1
해고노동자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연민	120	35.2	116	35.8	236	35.5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미안함	24	7.0	104	32.1	128	19.2
해고노동자와 비슷한 경험	8	2.4	20	6.2	28	4.2
전체	341	100.0	324	100.0	665	100.0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참여는 해고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동정심의 영향도 있었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적인 기부행위에서 동정심이 가장 큰 동기요인으로 나타나는 것과 매우 차별적이며, 공동체 의식 즉 사회적 연대로서의 행위임을 알 수 있다.

1. 수평적 관계의 기부행위

연대적 관계는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협력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이를 실

현하는 관계이다. 즉 타자에 대한 피상적인 동감을 넘어서, 공감을 바탕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야 한다”는 강력한 연대적 주체가 형성된다(권영숙, 2013). 즉 연대는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 피상적인 연민을 느끼고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수직적, 시혜적 관계가 아니라,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상호존중하고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이다.

<노란봉투 캠페인>의 기부참여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동정심’보다 ‘공감’과 ‘연대의식’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표4-1). 따라서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참여는 해고노동자들의 고통을 피상적인 동정이 아니라, 자신의 일처럼 공감하고 이를 협력해서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수평적 관계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참여자들은 기부대상자인 해고노동자들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나누는 수직적(시혜적) 관계인 ‘일방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보다는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동료’로 바라보고 있었다. 설문 응답자의 74.5%가 해고노동자를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동료’라고 생각했으며, 16.1%는 ‘현재는 도움의 대상이나 잠재적으로 도와주는 주체’로 생각했다. 반면 ‘일방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이라는 생각은 5%에 불과했다(표4-4)

<표4-4> 기부대상자인 해고노동자에 대한 관점

기부대상자인 해고노동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N	%
일방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	17	5.0
현재는 도움의 대상이나, 잠재적으로는 도와주는 주체	55	16.1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동료	254	74.5
기타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 ‘외면해서는 안될 공동체 구성원’ ,	12	3.5
무응답	3	0.9
전 체	341	100.0

연령대별로 해고노동자에 대한 관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모든 연령대가 해고노동자를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동료’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30-40대는 ‘현재는 도움의 대상이나 잠재적으로 도와주는 주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30-40대는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고 있으면서 해고노동자들과 비슷한 연령대로 자신도 언젠가 해고노동자와 같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부참여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20대 이하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20대 이하는 아직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는 연령대로 해고노동자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공감보다는 피상적인 동감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20대 이하의 연령대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비율도 높았지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동료’로 바라보는 관점은 30대 보다 높게 나타난 점에서 기부대상자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수평적 관계로 변화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교육, 경제적 수준별로 비교하면 대학원 재학 이상의 고학력, 상층 집단은 상대적으로 해고노동자를 ‘일방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비율이 높은 반면 전문대 이하, 하층 집단의 경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동료’로 바라보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해고노동자와 비슷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속해 있을수록 공동의 이해관계를 통해 수평적 관계의 연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 요인 1순위와 교차분석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해고노동자와 비슷한 경험’을 선택한 집단에서 ‘일방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해고노

동자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연민'을 선택한 집단이었다. '노동자 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을 선택한 집단에서는 해고노동자들을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동료로 바라보는 비율이 82.4%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는 해고노동자의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해고노동자를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에 반해, 노동자 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해고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보다 수평적 관계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 연령,교육,경제적 수준별 해고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

해고 노동 자에 대한 관점	연령대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전문 대이하	4년제 대졸	대학 재학 이상	하층	중층	상층
일방적 으로 도움을 줘야하 는 대상	12.0	7.8	0.7	7.1	3.2	5.0	5.6	3.7	4.3	14.3
현재는 도움의 대상이 나,잠 재적으 로는 도와주 는 주체	8.0	20.2	18.3	2.4	12.9	17.6	15.2	12.9	16.8	17.8
문제를 함께 해결하 는 동료	76.0	69.0	78.2	83.3	80.6	74.7	74.4	81.5	74.6	67.9
기타	4.0	3.0	2.8	7.2	3.3	2.7	4.8	1.9	4.3	0.0
합계	100.0 %	100.0 %	100.0 %	100.0 %						
χ^2	20.590				1.808			8.013		
df	9				6			6		
p	.015				.936			.237		

<표4-6> 참여요인에 따른 해고노동자에 대한 관점

해고 노동자에 대한 관점	해고노동자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연민		해고노동자 와 비슷한 경험		사회구성원으 로서의 공동체의식		해고노동자 들에 대한 미안함	
	N	%	N	%	N	%	N	%
일방적으로 도움을 줘야하는 대상	8	7.2	0	0	7	3.9	2	8.3
현재는 도움의 대상이나, 잠재적으로는 도와주는 주체	25	22.3	2	25.0	25	13.7	3	12.5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동료	79	70.5	6	75.0	150	82.4	19	79.2
전 체	112	100.0	8	100.0	182	100.0	24	100.0

1) 비슷한 경험에서의 수평적 관계

이처럼 연대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함에서부터 비롯된다. 서로가 비슷한 경험 또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할 때, 공통의 이해관계가 발생하며 이를 위해 협력해 가는 수평적인 관계이다. <표4-6>에서 ‘해고노동자와 비슷한 경험’의 영향으로 기부참여를 한 집단에서는 해고노동자를 ‘일방적으로 도움을 줘야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은 것에서 비슷한 경험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수평적 관계를 이루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부참여를 하며 보내온 편지 기부자 1은 IMF 시기에 해고통보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 그때 상처와 굴욕, 생활의 어려움 등에 대한 기억으로 누구보다 해고노동자의 심정과 어려움을 잘 헤아리고 있다.

해고통보를 받고 IMF 100일 파업으로 보냈던 사십대입니다. 약간의 위로금과 함께 그 회사를 나와서 다른 직장생활 후 수년전부터는 조그마한 자영업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때 그 상처, 굴욕감, 생활에 대한 불안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 회사에 대한 배신감 등은 문득문득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물며 손배소와 가압류에 시달리는 분들임에랴! 싶습니다. - 편지 기부자 기부자 1

기부자 G는 해고의 경험은 없지만, 학창시절에 IMF 시기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경험으로 해고노동자가 겪고 있는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으며, 해고노동자가 겪는 문제를 언젠가는 자신도 겪을 수 있는 일이며 그들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와 같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거 같아요..(중략). 지금 더 절실하게 느껴요. 이번에 노동개혁이란 말로... 저희는 지금 임금피크제 대상이거든요. 무조건 해야 하거든요. 위에 있는 분들은 월급이 다 깎이게 되어 있어요. 나도 언젠가 저 입장이 될 수 있는데 그냥 그거를 내 일이 아니니깐 나는 괜찮으니깐 넘어가는 거 자체가 부끄럽기도 했고 사회적으로 보험이나 연대 같은 것들이 좀 있었으며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중략) 지금 하고 있는 기부와 그것과 마음가짐이 달랐던건..이 이일은 내 일이라고 느껴졌어요. 다른 것들은 사회를 좀더 행복하고 밝게 하는 누군가가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하고 있으니깐..이런 정도였는데 이 일은 곧 제 일이라고 느껴졌던게 그 사람들 이야기 하나하나가 가정 이런것들이 좀...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기억들도 같이 났던거 같아요...IMF때 우리 집이라던가..꼭 같은 건 아니지만.. - 기부자 G

이처럼 과거의 해고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은 비슷한 경험은 해고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며 이를 자신의 문제로 느끼게 한다. 이러한 공감은 타인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게 하며 이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수평적 관계에서의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며 <노란봉투 캠페인>에 기부참여가 이뤄졌다.

2) 동일시(자아확장)를 통한 수평적 관계

수평적 관계는 비슷한 경험이 없더라도, 동일한 정체성, 계급을 통해 형성되기도 한다. 기부자 E는 현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 특성에 따라 간혹 관리자의 입장이 되기는 하지만 스스로를 노동자로 규정하며, 해고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자신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해고노동자들과 동일한 노동자라는 계급적 정체성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곧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수평적 관계에서 <노란봉투 캠페인>에 기부참여를 했다.

(노란봉투캠페인에 참여한) 가장 큰 이유는..언론에 어쨌든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기본적으로 나는 노동자라고 생각을 갖고 있지 사측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물론 나는 회계업무를 하고 관리부서기 때문에 가끔 회사입장이 되긴 하더라도.. 하지만 전체입장에서 나는 노동자지 관리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기부자 E

동일한 계급 정체성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에게도 확장된다. 편지 기부자 2는 ‘입장이 바뀌었으면 내가 혹은 가족이 해고노동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십시일반 한다고 밝혔다. 편지 기부자 3 역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해고와 파업 이야기를 담은 의자놀이라는

책을 보며 ‘불안정한 고용시장에 놓인 신랑 같다’고 느끼며 ‘꺼이꺼이 울었던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즉 현재 기업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 자신 혹은 가족이 노동자로서 해고노동자와 동일한 계급정체성을 가지며 그들의 고통을 바로 자신 또는 가족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임을 인식하고 기부 참여를 한 것이다.

제가 입장이 바뀌었으면 쌍용차 해고노동자일수도..제 가족이 그 어려운 당사자일 수도 있었겠지요. 십시일반..작은 정성을 보탭니다.”-편지 기부자 2

‘의자놀이’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꺼이꺼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가 불안정한 고용시장에 놓인 신랑같이 여겨졌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편지 기부자 3

기부자 D는 해고노동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자신, 가족을 넘어서서 고용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해고절차나 관련제도를 바꿔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그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적 관심으로서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했음을 밝혔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그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고용관계 안에서 내가 고용된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해고 될 수 있는 거고 해고의 과정이나 해고절차나 이런 것들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관심으로 보이지 않으면 더욱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그게 나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기 보단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깐 바뀌야겠다고 생각 했던 거 같아요.- 기부자 D

이처럼 해고노동자가 겪고 있는 현실을 동일한 정체성, 계급을 가지고 있는 자신 또는 주변인, 그리고 나아가서는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 모두에게 확장하여 인식함으로써 공동의 이해관계가 형성되며 수평적 관계의 연대로서 <노란봉투 캠페인>에 기부참여를 하게 된 것이다.

2. 공동의 책임감

‘연대’는 공동의 이해관계와 함께 공동의 책임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책무를 요구하며, 일반적인 사회구성원 모두가 ‘묵묵히 지켜가는 규범체계’가 존재한다. 그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책무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가 들어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책무, 책임의 바탕 감정은 부채의식과 감사, 그리고 죄책감이며 이와 같은 연결점에는 타자 성찰, 즉 공감의 놓여있다. 공감의 타자 성찰을 통해 타자를 내면화하고 내면화된 자아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조정한다. 부채의식과 감사, 죄책감은 모두 이 타자 성찰의 공감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이렇게 형성된 감정은 개인들을 공동체에 접착시키는 사회적 연대의 기능을 담당한다(김왕배, 2013).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시민으로

서의 사회적 책임감(표4-1)'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표4-3)'으로 <노란봉투 캠페인>의 기부참여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동의 책임감을 기반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심층인터뷰 참가자들도 오랫동안 해고노동자들의 현실을 방기했다는 데 대한 부채의식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이러한 사회문제를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되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1) 타자에 대한 공감과 내면화, 자아 성찰을 통한 부채의식

공감은 타자를 내면화하고 내면화된 자아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게 한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생겨나는 부채의식과 죄책감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더욱더 느끼고 서로가 연대하게끔 한다.

쌍차 문제는 워낙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안이었고 쌍차 노동자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었고 저는 그냥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내 삶을 충실히 살 뿐이었는데 뭔가 쌍차 노동자들에게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사회적으로 노동의 문제나 해고의 문제가 그 사람들의 문제는 아니고 전 사회적으로 특히 노동자로 산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 근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쌍차 노동자들을 위한 집회를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른 액션을 취하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채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기부자 C

기부자 C는 해고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자신을 포함하여 노동자로 산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공감하고 내면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집회를 나가거나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자신에 대해 반성을 하며 일종의 부채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2) 사회적 책무에 대한 부채의식

평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해고노동자 문제에서는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부채의식 또한 있다.

기부자 H는 자녀양육 등 생활로 인한 제약으로 이를 다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에 대해 죄책감과 답답함을 느끼던 중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한 가수 이효리씨가 편지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모른 척하면서 해고노동자들이 삶을 포기하는 등 사안이 더 커지게 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 모른척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애 낳고 소시민으로 살면서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 눈감고 사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생기게 되고...(중략)...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보다 쌍용차 사건을 보면서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 힘을 실어주고 싶었어요. 이효리씨가 편지에 저 또한 마음속으로만 잘 해결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게 부끄러웠고...모두가 모른척하는 외로움에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라고 적었었는데, 제가 그 모른척하고 있는 한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 기부자 H

기부자 E는 직장 생활을 하기 전까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변화시키는 것에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집회 참여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나랑 관계없어’라고 생각하였으며 그런 생각이 삶에 익숙해 졌다고 이야기하며, 그동안의 묵인에 대한 미안함을 느꼈다.

약간의 미안함을 덜어낼 수도 있고..내가 갖고 있었던 미안함은 모른 체였거든. 과거에 학교를 다닐 때나 뭐 아니면 사회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도 사회를 바꿔야 한다 혹은 부당함을 바꿔야한다 라는 그런 마음들을 늘 갖고 살긴 했지만.. 회사에 다니면서 삶에 지쳐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겨나면서 나랑 관계 없어 라는게 굉장히 삶에 익숙해 진거지 그 부분이 어느 날 정신차려보면 미안함이 된 거지..사회가 좀 더 공정했으면 좀 더 동등한 정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이라는 기본적 마음이 있었는데...그게 아닌걸 알면서도 묵인하는 기분이 있었던 거지...- 기부자 E

즉 기부자 H와 E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알고 있으며 과거 집회 참여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했지만, 자녀양육과 직장 생활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해고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부채감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부채감 같은 거였던 거 같아요.. 말로서 뭔가 힘든 사람을 도와야지 이야기는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용산참사라던가 사회에서 소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제가 그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데 늘 이야기 하죠 거꾸로 내가 뭘 했냐고 했을 때 정작 한 게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고... - 기부자 G

이러한 부채감은 현실적 제약 외 사회적 책임감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생기기도 한다. 기부자 G는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SNS에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많이 표현하는 편이다. 하지만 SNS에 의견을 올리는 것 외 실제로 자신이 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미안함을 느꼈다고 이야기 했다. SNS와 같은 형태의 사회참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부채의식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방식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

3)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공동체는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요구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이 존재한다. 심층인터뷰의 참여자들은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다루고 있는 해고노동자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기부자 C는 ‘성인이 되고 20년이 지났다’고 표현하며 40대라는 연령대가 사회적으로 성숙한 나이인 만큼 사회 제도적인 문제 등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은 노동 고용관계라던가 해고의 이슈라는게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40대고.. 20대도 10대도 아니고 어느 정도 사회가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라던가 문화적인 것들에 책임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인이 되고 20년이 지났으니깐...-
기부자 C

이와 같이 <노란봉투 캠페인>에 기부참여는 해고노동자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내면화하면서 오는 자기반성과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대한 부채감, 그리고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며 이뤄졌다.

3. 사회적자본의 형성

사회적 자본은 “사회조직의 특성으로 신뢰(trust), 규범(norm), 수평적 네트워크(horizontal network)’로 이루어진 공공재(public good)이며 협력적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Putnam 2000, 송경재 2013 재인용). 또한 미시간대학교 사회적자본 연구회(Social Capital Interest Group 1998)도 “한 개인 혹은 집단이 다른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갖고 있는 동질감과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잠정적인 혜택, 이득 및 호혜적인 대우”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는 사회적자본의 속성을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사회적 집단에서 형성되며, 다른 집단 또는 개인을 신뢰하고 얼마나 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산이 상호간의 이득을 주게 되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송경재, 2013). 이는 과거 정치사상가들이 시민적 품성(civic virtue)이라고 부르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민적 품성은 연대와 같이 호혜적 사회관계의 촘촘한 네트워크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사회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회적, 조직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으로서 시민의 품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서로 고립되어 있다면 공동체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상호신뢰’, ‘사회적 연계망’, ‘호혜성의 규범’, ‘협력적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상호신뢰와 호혜성은 ‘내가 해고노동자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

군가 도와줄 것이란 믿음이 생겼다’, 협력적 네트워크는 ‘문제 발생 시 구성원이 힘을 모으면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적 소속감은 ‘내가 집단/사회에 소속된 일원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사회적 연계망은 ‘내가 속한 집단/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로 재해석하여 4점 척도로 설문문항을 만들어 연구자가 호혜적 사회관계에서 이뤄진 연대행위라고 바라보고 있는 <노란봉투 캠페인>에 기부참여를 하면서 이러한 사회적자본 형성 되었는지 분석하였다.

<표4-7> 사회적자본 형성 측정 문항

구분	문항	측정방법
상호신뢰/호혜성	내가 해고노동자와 같은 어려움이 처했을 때 누군가 도와줄 것이란 믿음이 생겼다.	4점 척도 측정
협력적 네트워크	문제 발생 시 구성원이 힘을 모으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속감	내가 집단/사회에 소속된 일원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사회적 연계망	내가 속한 집단/사회구성원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 결과, ‘협력적 네트워크’가 평균 2.7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소속감(2.77)’, ‘사회적 연계망(2.70)’, ‘상호신뢰/호혜성(2.4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 노란봉투 캠페인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

	상호신뢰/호혜성	협력적 네트워크	소속감	사회적 연계망
평균	2.46	2.78	2.77	2.70

* 4점 척도의 값임

연령,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별로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참여를 통한 사회적자본의 형성을 교차분석했을 때, ‘협력적 네트워크’와 ‘소속감’은 연령대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협력적 네트워크’는 5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10%p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소속감’은 20대 이하와 5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10%p가량 높게 나타났다. 50대 이상은 이미 경제활동에서 은퇴를 했거나 앞두고 있으며, 20대 이하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소속이 안정되지 않은 연령대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들에게 소속감은 기부참여의 강력한 동기이자, 기부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생각과 기부자 집단에 속함으로써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50대 이상은 이미 경제활동에서 은퇴를 하거나 앞두고 있어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연령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아의 성숙으로 인해 사회적인 관계와 이슈에 대한 자아확장으로 더욱더 소속감을 느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상호신뢰/호혜성’은 30대, 전문대 이하, 하층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협력적 네트워크’와 ‘소속감’, ‘사회적 연계망’은 50대 이상, 대학원 재학 이상, 중층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고노동자와 비슷한 지위에 있을수록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참여를 서로 돕는 것으로 이해하고, 자신이 비슷한 어려움이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집단은 기부참여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이해하고, 기부참여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참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4-9> 연령,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별 사회적자본 형성

구분	기대 여부	전체	연령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전문대 이하	4년제 졸	대학원 재학 이상	하층	중층	상층
상호 신뢰/호혜성	사례수 (N)	341	25	129	144	43	31	184	126	55	258	28
	그렇지 않다	186	64.0	51.2	54.2	60.5	35.5	57.1	55.6	47.3	55.0	64.3
	그렇다	155	36.0	48.8	45.8	39.5	64.5	42.9	44.4	52.7	45.0	35.7
<합계,>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χ^2			4.534				10.152			7.400		
df			9				6			6		
p			.873				.118			2.85		
협력적 네트워크	사례수	341	25	29	144	43	31	184	126	55	258	28
	그렇지 않다	106	32.0	34.9	31.9	16.3	32.3	33.2	27.8	38.2	29.5	32.1
	그렇다	235	68.0	65.1	68.1	83.7	67.7	66.8	72.2	61.8	70.5	67.9
<합계,>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χ^2			21.141				6.396			8.791		
df			9				6			6		
p			.012				.380			.186		
소속감	사례수	341	25	129	144	43	31	184	126	55	258	28
	그렇지 않다	107	28.0	32.6	33.3	23.3	41.9	31.5	28.6	43.6	27.9	39.3
	그렇다	234	72.0	67.4	66.7	76.7	58.1	68.5	71.4	56.4	72.1	60.7
<합계,>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χ^2			19.419				4.645			8.310		
df			9				6			6		
p			.022				.590			.216		
사회적연계망	사례수	341	25	129	144	43	31	184	126	55	258	28
	그렇지 않다	126	48.0	38.8	36.1	27.9	38.7	37.0	36.5	41.8	34.9	46.4
	그렇다	215	52.0	61.2	63.9	72.1	61.3	63.0	63.5	58.2	65.1	53.6
<합계,>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χ^2			10.189				3.434			3.831		
df			9				6			6		
p			.335				.753			.700		

심층인터뷰 참가자들은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를 통해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에서 힘든 일에 처했을 때 도와줄 이웃이 있다는 ‘상호신뢰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부참여가 ‘협력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연계망’으로서 함께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보여주고자 하는 생각으로 기부를 했음을 밝혔다.

1) 상호신뢰와 호혜

호혜성은 ‘도덕적 의무’에 바탕을 둔 교환유형이다. 호혜의 관계에서 자원이 흐르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보다는 사회관계가 가하는 도덕적 힘 때문이다. 호혜성의 규범에서는 교환의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것을 되갚아야 할 ‘의무’와 자신이 베푼 것을 되돌려 받아야 할 ‘권리’ 모두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이 ‘권리’만을 지니고 다른 사람은 ‘의무’만을 지니는 경우, 그것을 호혜성이라기보다는 상보성(complementary)이라고 할 수 있다. 호혜성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나의 ‘권리’를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로 보고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대는 현상학적 의미에서의 ‘신뢰’라고 한다(최종렬, 2004).

<노란봉투 캠페인>의 기부참여자들도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해 상대방이 갚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 설문응답자의 16.1%가 기부대상자인 해고노동자를 ‘현재는 도움의 대상이나, 잠재적으로는 도와주는 주체’로 생각하고 있으며(표4-4), 가장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연령대인 30-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해고노동자를 ‘현재는 도움의 대상이나, 잠재적으로는 도와주는 주체’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표4-5).

이러한 신뢰는 기부대상자인 해고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참여자들, 나아가 불특정 다수로 확장되었다. 심층인터뷰 참가자

들은 자신이 현재 도움을 준 해고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란봉투 캠페인>에 기부참여를 한 사람들을 보며,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똑같이 이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배춘환씨의 편지)진짜 짧은 편지였는데 너무 울컥한 거예요 혼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세상이..이렇게 나 혼자만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데 힘을 보태면서..그냥 보내는 사람들도 그런데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아 돈을 내야겠다. 모금으로 사회에 힘을 보일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그래도 그렇게 힘을 보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힘든 일이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얘 기잖아요- 기부자 C

우리 자식들도 노동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족들과 수많은 이웃들이 또한 노동자로 살아가기에...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의 이웃이 외면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이 그리 팍팍 하지만은 않을 것 같고...- 소셜 댓글 1

기부자 C는 <노란봉투 캠페인>의 기부참여자들을 보면서 ‘(서로 돕는 이웃이 있다는)희망’을 발견했다고 했다. 소셜 댓글에서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웃이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면 세상이 그리 팍팍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즉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참여를 하면서 기부대상자인 해고노동자에게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함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서로 도와주는 이웃이 있으며 자신에게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가 형성됐다.

2) 사회적 소속감과 협력적 네트워크

개인화되고 분산됨에 따라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끼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소속감과 협력적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참여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부자 집단에 소속되어 있음을 느끼며, 소속 구성원들이 힘을 모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아름다운재단 실무자 B는 그동안 사회 변화를 위해 기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며 ‘(기부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스스로 다시 한번 깨달음’과 동시에 사회변화를 위해 참여를 하는 집단에 소속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참여를 했다. 기부자 H는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도 많았다니..우리 사회는 아직 죽지 않았구나 싶기도 하고 반가운 마음이 컸다’며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동질적인 구성원을 발견하며 소속감을 느끼는 한편 함께 힘을 모아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결(되기엔 작은 금액이지만)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저도 기부라는 걸 예전에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특별히 아이들이 불쌍하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더라도 기부가 쉽게 뻗지 않았던 이유는 저도 그 냉소가 있었어요. 내가 돈을 낸다고 ‘세상이 뭐가 바뀌겠어’란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기부를 하고 있다란 거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걸 보고 자기 스스로도 다시 한번 깨닫고 아직은 그래도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저기 소속되고 싶다.. - 아름다운재단 실무자 B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도 많았다니..우리 사회는 아직 죽지 않았구나 싶기도 하고 반가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해고자들이 사회적인 불합리함에 맞서는거에 있어서 힘을 실어주고 싶은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노동운동이 집단이기주의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전 노란봉투이고, 파업만 하면 생기는 손배소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결(되기에 작은 금액이지만)될 수도 있다는걸 보여주고도 싶고...- 기부자 H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 과정에서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으며, 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며 느슨한 관계 속에서도 촘촘한 협력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고 추정된다.

4. 갈등해결

연대는 사회갈등을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속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저항과 요구들을 민주적으로 통합해 내는 과정을 통해서만 상호공존을 지향하는 포용적인 연대가 형성된다(홍윤기,2010).

<노란봉투 캠페인>의 기부참여자 역시 해고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손배소와 같은 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갈등, 그리고 손배소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법제도)와 노동자들 간의 갈등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해결하기를 희망하였으며 해결방안 중 하나로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했다. <노란봉투 캠페인>이 다루고 있는 해고노동자 문제와 같은 갈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 338명 중 250명(74.0%)는 해고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갈등을 ‘이해 당사자 외 다른 사람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

으며, 74명(21.9%)은 ‘갈등 주요 이해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부 주도 개입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따라야 한다’는 5명(1.5%)으로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참여자들은 아니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이 갈등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거나 현재는 해고노동자가 아니지만 노동자, 즉 이해당사자로서 갈등해결을 위해 <노란봉투 캠페인>에 기부참여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4-10> 갈등해결 방식

내 용	N	%
이해당사자 외 다른 사람들도 사회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	250	74.0
갈등 주요 이해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74	21.9
기타 : 근본적 체제변혁, 정부가 나서야 하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 이해대상자간 해결해야 하지만 사회구성원의 관심 필요	9	2.7
정부 주도 개입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따라야 한다.	5	1.5
전체	338	100.0

* N=338, 무응답 3명은 결측 처리

그리고 이들은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참여를 통해 해고노동자와 손배소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해고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필요한 ‘해고노동자 생계비 지원’, ‘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분위기 형성’, ‘사회적 연대 확산’, ‘법률개선’을 4점 척도 설문문항을 만들어 조사한 결과, 해고노동자지원(3.37), 노동자 인권 보장 사회분위기 형성(3.17), 사회적 연대확산(3.36), 법률개선(3.03) 모두 ‘기대했다’로 나타났다(표4-11).

<표4-11>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 시 기대

	해고노동자 지원	사회적연대 확산	노동자인권보 장사회분위기	법률개선
평균	3.378	3.363	3.170	3.035

* 4점 척도의 값임

연령, 교육/경제적 수준별로 교차분석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법률개선은 30대가 다른 가장 많이 기대하였으며 20대 이하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20%p가량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연대 분위기 확산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는 20대 이하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탈물질적인 가치를 더욱 추구함으로써 실질적 해결방법인 법률개선보다 사회적연대 분위기 형성에 더 큰 기대와 함께 그러한 가치의 실현으로서 기부참여를 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참여요인별 기대사항을 교차분석 한 결과, 참여요인이 ‘해고노동자와 비슷한 경험’인 집단은 노동자 및 가족지원을,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인 집단은 사회적 연대 확산과 노동자 인권을 위한 사회분위기 형성을, ‘해고노동자에 대한 연민’인 집단은 법률개선을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기대했다. 이는 실제로 ‘공동체 의식’으로서 기부참여를 한 집단은 기부가 물질적인 자원의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로서 가치의 실현이자 <노란봉투 캠페인>을 통해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참여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11> 연령,교육,경제적 수준별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 시 기대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 시 기대		연령대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전문대 졸이하		4년제 졸		대학원 재학 이상		하층		중층		상층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노동 자가 족지 원	기대 하지 않았 다	2	9	8	6	7	5	2	5	1	3	11	6	7	6	1	2	16	6	2	7
	기대 했다	23	91	121	94	137	95	41	95	30	97	173	94	119	94	54	98	242	94	26	93
합계		25	100	129	100	144	100	43	100	31	100	184	100	126	100	55	100	258	100	28	100
사회 적분 위기	기대 하지 않았 다	4	16	25	19	24	17	4	9	5	16	31	20	21	17	11	20	38	15	8	29
	기대 했다	21	84	104	81	120	83	39	91	26	84	153	83	105	83	44	80	220	85	20	71
합계		25	100	129	100	144	100	43	100	31	100	184	103	126	100	55	100	258	100	28	100
사회 적연 대확 산	기대 하지 않았 다	4	16	14	11	14	10	3	7	1	3	18	10	16	13	4	7	25	10	6	21
	기대 했다	21	84	115	89	130	90	40	93	30	97	166	90	110	87	51	93	233	90	22	79
합계		25	100	129	100	144	100	43	100	31	100	184	100	126	100	55	100	258	100	28	100
법률 개선	기대 하지 않았 다	11	44	33	26	43	30	10	23	5	16	54	29	38	30	16	29	70	27	11	39
	기대 했다	14	56	96	74	101	70	33	77	26	84	130	71	88	70	39	71	188	73	17	61
합계		25	100	129	100	144	100	43	100	31	100	184	100	126	100	55	100	258	100	28	100

<표 4-12> 참여요인별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 시 기대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 시 기대		해고노동자의 경제적/심리 적 어려움에 대한 연민		해고노동자 와 비슷한 경험		노동자 또는 사회구성원 으로서의 공동체의식		해고노동자 들에 대한 미안함	
		N	%	N	%	N	%	N	%
노동자, 가족지원	기대하지 않았다	6	5	0	0	12	6	1	4
	기대했다	114	95	8	100	177	94	23	96
합 계		120	100	8	100	189	100	24	100
사회 분위기	기대하지 않았다	28	23	3	38	22	12	4	17
	기대했다	92	77	5	63	167	88	20	83
합 계		120	100	8	101	189	100	24	100
사회적 연대확산	기대하지 않았다	13	11	1	13	17	9	4	17
	기대했다	107	89	7	88	172	91	20	83
합 계		120	100	8	101	189	100	24	100
법률개선	기대하지 않았다	32	27	3	38	53	28	9	38
	기대했다	88	73	5	63	136	72	15	63
합 계		120	100	8	101	189	100	24	101

심층인터뷰에서 참가자들은 <노란봉투 캠페인>은 파업에 대한 손배소라는 분명한 이슈(사회갈등)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참여했음을 밝혔다.

1)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연대) 행위

연대는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저항과 갈등 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공존을 하며 형성된다. <노란봉투 캠페인>의 기부참여자들은 기부행

위 자체가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 연대의 의미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갈등해결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부자 H는 포기하지 않고 투쟁 하고 있는 해고노동자들이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사회적인 불합리함에 맞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해고노동자들에게 그들이 고립되지 않았음을 알리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노란봉투 캠페인>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했다.

기부자 E와 F는 <노란봉투 캠페인>의 기부금의 쓰임새에 대한 기대보다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와 손배소가 부당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즉 자신의 목소리를 더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발언이 커지고, 이러한 여론형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참여했다.

해고자들이 사회적인 불합리함에 맞서는 거에 있어서 힘을 실어주고 싶었어요. 노동운동이 집단이기주의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전 노란봉투이고, 파업만 하면 생기는 손배소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결...되기엔 작은 금액이지만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도 싶고...- 기부자 H

참여하는 순간 카운트를 더하면서 목소리를 올려주면서 힘을 더 한명 더 실는다는 의미가 강했던 거 같아. 그 돈이 해고노동자들의 생계비로 쓰이건 다른 어떤 곳에 사용될지는 고려하지 않았고...한명 더..한명 더..라고 했을 때... 이 사회에 대해 수치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잖아 숫자가 권력이 될 수 있는 거고 힘이 될 수 있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이 참여했을 때 그게 힘이 되길 원했던 거지.. - 기부자 E

노란봉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뭔가 목소리가 더 커지는..단순히 모아놓은 돈에 대해서 동정이나 그런 느낌이 더 크기보다는...같이 좀.. 잘못됐고 문제가 됐다는 걸 같이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들이 더 필요 하잖아요 - 기부자 F

즉 <노란봉투 캠페인>의 기부참여는 해고노동자들의 생계비 지원과 같은 ‘돈’의 개념보다는 부당한 해고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와 연대로서의 참여라고 할 수 있다.

2) 분명한 이슈(갈등)과 해결에 대한 의지

<노란봉투 캠페인>의 기부참여를 통해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와 함께 해고와 손배소 이슈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을 기대하고 있었다. 기부자 A는 아동결연과 같은 기부는 아동이 겪고 있는 가난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관련된 사회제도 등을 개선해야겠다는 것보다 현재 그 상황을 조금 더 좋게 해주기 위함이라면, <노란봉투 캠페인>은 해고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갈등에 대해 인식하고 기부참여를 통해 그 갈등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런 점이 다른 기부행위와의 차이점이다.

결연에 대해서..할 때는..그 상태를 그 아이 상태를 조금 더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환경을... 그렇지만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노란봉투는 이슈가 분명 하잖아요 거기에 참여한 만큼 최소한 그 이슈만큼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게 되었지요. - 기부자 A

기부자 A와 G는 해고노동자들이 겪는 생계의 어려움에 대한 동정만 있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법제도 개선까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즉 해고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갈등을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란봉투 캠페인>이 그런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참여했다.

근데 그때 어디까지 못갔냐면 법의 부당성까진 못했던 거예요. 감정적으로..심하다..계약직인 우리 아들 힘들다..대학등록금 어떻게 할 것이냐...그 상황에 대한 동정이 있었지만 그 상황이 정당하다고 하는 법의 판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한 단계였잖아요. 모든 것들을 좀 더 드러내서 원인이 어땠었고 싸움이 본질이 무엇인지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기부자 A

거꾸로 아쉬움이 있죠. 제도적으로 저런 손배소라던가 정말 과도하게 저렇게... 폭력인거죠 저런 것들을 왜 막지 못하고..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저 사람들에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된 건가 안타까운거죠. 제2의 노란봉투 제3의 노란봉투가 나오면 안되는 거잖아요. - 기부자 G

<노란봉투 캠페인>은 해고노동자에 대한 손배소와 가압류라는 명확한 이슈와 갈등을 다루고 있다. 그에 따라 기부참여자들은 이러한 갈등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해결방식에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지원도 있지만 법률개선과 같은 제도적인 문제 해결과 상호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도 포함되어 있었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기부는 공동체를 향한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 안정과 결속을 위한 중요한 기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주로 사회복지분야의 민간자원으로서 강조되었고 그에 따라 시혜적, 자선적 기부행위만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소셜펀치’와 같은 온라인기부사이트를 통해 사회운동, 사회참여 성격의 기부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동기와 분야의 기부행위가 나타나고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2014년 아름다운재단에서 진행한 해고노동자 생계비 지원 및 법률개선을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은 기부가 시민들의 사회참여, 사회적 연대로서의 행위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란봉투 캠페인>의 기부참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연대의 성격을 분석하고, 왜 사람들이 기부를 통해 연대를 하는지 그 변

화의 동인을 살펴보았다. 먼저 <노란봉투 캠페인>의 시작과 진행과정을 통해 노란봉투 캠페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둘째, 사람들이 기존의 조직화된 연대 활동이 아닌 기부참여 방식으로 연대를 하게 된 그 동인을 살펴보았다. 셋째, <노란봉투 캠페인>에 기부 참여에 있어 사회적 연대의 특징으로 규정한 ‘수평적 관계’, ‘공동의 책임의식’, ‘사회적자본 형성’, ‘갈등해결지향’ 여부를 분석하여 기부참여가 사회적 연대로서의 행위임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노란봉투 캠페인>은 모금을 하는 비영리단체가 아닌 시민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제안은 해고노동자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제도가 부당하다는 생각의 표현이자, 해고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함이었다. 즉 <노란봉투 캠페인>의 시작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물질적 지원의 형태가 아니었으며, 아름다운재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자신과 관련 없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월급을 받는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강조하며 월급봉투와 노란봉투 이미지를 캠페인에 활용하는 등 동정심보다는 공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며 캠페인을 진행했다.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부참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은 ‘사회적 책임감’이었으며 ‘동정심’은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친 요인이었다. 이는 기존의 기부의 주요 동기가 ‘동정심’인 것과는 차별적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공동체 의식 즉 사회적 연대로서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연대의 성격으로 규정한 ‘수평적 관계’, ‘공동의 책임감’, ‘사회적자본의 형성’, ‘갈등해결지향’의 측면에서 먼저 <노란봉투 캠페인>의 기부참여자들은 기부대상자인 해고노동자들을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동료’로서 바라보고 수평적 관계에서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는 기부대상자를 일방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수혜적인 기부와는 다른 행태이다. 또한 연령대별로 비교했을 때, 30-4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재는 도움의 대상이나 잠재적으로 도와주는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가장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고노동자와 비슷한 연령대는 해고노동자와 자신의 위치를 동일하게 보며 언젠가 자신도 해고노동자와 비슷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상호호혜적인 관계에서의 기부가 이뤄졌다.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참여자들은 해고노동자와 비슷한 경험을 이미 했거나 혹은 해고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을 자신 또는 주위사람들로 확장하고 내면화함으로써 동질적 계급으로 받아들이며 ‘수평적 관계’에서 기부가 이뤄졌다.

이렇게 해고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공감과 내면화는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의 책임감을 갖게 하며,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조정하게 한다. 그에 따라 사람들은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부채의식을 가지게 된다. <노란봉투 캠페인>의 기부참여의 가장 큰 요인은 ‘사회적 책임감’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이었으며 동시에 기부참여자들은 해고노동자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호혜의 사회적 관계에서 이뤄진 행위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더욱 강화시킨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의 핵심을 ‘상호신뢰와 호혜성’, ‘사회적 연계망’, ‘소속감’, ‘협력적 네트워크’라고 보고, ‘해고노동자와 같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상호신뢰와 호혜성)’,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믿음(사회적 연계망)’, ‘문제 발생 시 구성원이 힘을 모으면 해결 가능(협력적 네트워크)’로 재해석하여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모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령대별로 교차분석 했을 때 ‘소속감’과 ‘협력적 네트워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사회적

으로 불안정하고 고립되어 있는 20대 이하가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참여를 통해 사회적 구성원 역할 수행으로 인한 소속감뿐만 아니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집단을 발견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동일한 행동을 함으로써 소속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화되고 분산되어 더욱 고립된 개인적 삶을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기부를 통해 타인을 신뢰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노란봉투 캠페인>은 해고노동자들의 생계비 지원과 법률 개선을 모금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던 만큼 기부참여자들은 해고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갈등의 해결 방식 역시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모두가 참여하여 해결해야 하는 입장을 가지고 기부참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렇게 <노란봉투 캠페인>의 기부참여는 사회적 연대로서의 기부행위임이 밝혀졌으며, 기부가 통해 사회적 연대로서의 활동으로 확장되었는지 그 변화의 동인을 함께 살펴보았다. 우선 신자유주의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으나 기존의 구조화된 연대의 주체(노조 등)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특히 개인화된 현대 사회에서 구조화된 연대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은 시간적 제약 등으로 개인적으로 쉽게 접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부’를 연대의 방식으로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경제적 환경에서 자란 젊은 세대들은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서 보다 추상적이고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부 역시 기존의 자선적 의미, 빈곤한 자에게 물질적 지원을 해주는 것에서 사회적 연대의 의미, 즉 공동체와 사회적 가치를 발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과 물질의 풍요가 삶의 가치로 작용할 수 없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는 기부

역시 합리적 기능주의를 넘어서 보다 심미적 인간적 욕구가 충족과 인간 정체와 새로운 공동체 회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해고노동자들의 생계비 지원 및 법률개선을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기부행위를 동정심 기반의 자선적 행위에서 공동체 의식 기반의 사회적 연대 행위로 확장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그동안 기부의 주요 특징으로 여겨졌던 ‘동정심’ 기반의 ‘자선적 기부’와 ‘사회복지분야의 민간자원’의 역할에서 나아가 기부행위를 사회참여, 사회적 연대로서의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개인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이 파편화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연대방식을 찾게 되었고 그 방식 중 하나로 ‘기부행위’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 사회환경의 변화나 기부분야(영역)과 관계없이 기부자와 비기부자로만 나뉘어 동질적 집단으로 본 기부자집단을 사회적 연대 의미기 기부자 집단을 세분화하여, 그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러나 <노란봉투 캠페인>은 한 시민이 십시일반을 제안한 첫 시작과 진행과정에서 이미 사회적 연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로만 기부가 사회적 연대로서의 행위로 변화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사회 전체의 변화는 아니더라도 그 시발점으로는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주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젊은 세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연구 결과, 20대 이하의 젊은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기부를 연대의 의미로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는 탈물질주의적 가치 확산과 기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부에 대한 세대별 차이, 특히 젊은 세대의 기부 행위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단행본 논문은 같이 나열, 기타자료만 별도, 기타 아래 참조)

- 강수택, 2006, “사회적 연대 담론의 구조와 시민문화”, 한국사회학 제40집 6호, 25-55
- 강수택, 2006, “시민적 연대의 의미 구조 : 다원화된 현대 시민사회의 사회적 연대론, 사회와 이론 2006년 1호(통권 제8집) 105-148
- 강철희, 1998, “후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특징과 그들의 후원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권 1-29
- 강철희, 주명관, 2008, “한국인의 기부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 - 정기적 참여, 비정기적 참여 및 미참여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0권 제1호(통권 제22호) 1-38
- 강철희 외, 2011, “기부영역 선택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 사회복지영역과 비 사회복지영역 및 비기부 집단의 비교”, 사회복지정책 38(1): 247-276
- 김남숙, 2009, “기부자극요인 분석을 통한 기부자속성별 기부촉진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8집 133-155
- 김병서, 1995, “새로운 사회운동과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적 고찰”, 한국사회학 29집, 477-499
- 김용우, 2008, “미국 자선문화의 형성배경과 사회적 기여에 관한 역사적 연구:한국사회 자선문화의 정착을 위한 제언”, 동국대학교 역사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옥, 2010, “촛불시위와 한국 시위문화의 변동-거시적 변화에 대한 미시적 설명”, 한국정당학회 9(2), 33-59
- 김유나, 2002, “기부행동 및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온라인 기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자영, 김두섭, 2013,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자본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제33권 401-430

김정훈, 2015, “개인화의 양면성과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 동향과 전망 2015년 여름호(통권 94호), 9-44

김주원, 김용준, 2008, “자선단체 기부자의 기부동기와 기부행동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학연구 제27권 제3호 629-658

김왕배, 2013, “도덕감정:부채의식과 감사, 죄책감의 연대”, 사회와 이론 2013년 2호(통권 제23집) 135-172

김원식, 2010, “한국사회 갈등구조와 민주적 연대”, 사회와 철학 제19호

김형용, 2013, “포용적 사회와 나눔 문화의 현실 -소비주의 나눔에 대한 비판적 해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권 제4호(통권 제41호) 87-113

권영숙, 2012, “희망버스 이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흐름: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문제의식와 의미, 문화·과학 2012년 여름호(통권 70호) 361-371

권영숙, 2014, “우리의 정치적 재구성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정치학”, 황해문화, 305-322

노중기, 2009,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구조와 대응전략 연구”, 동향과 전망, vol 77, 248-280

보건복지부, 2015, “나눔실태 2014(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부

백기복, 2000, 조직행위연구, 서울:법문사

백옥인, 2012, “모바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사회운동의 변화 :대안공론장과 네트워크 포폴리즘”, 동향과 전망 2012년 봄호(통권 84

호) 130-159

서동훈, 2012, “자발적 연대와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투쟁 사례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노동정책 및 사회정책학과 석사학위 논문

서유석, 2010, “연대 개념의 역사적 맥락과 현대적 의미”, 시대와 철학 제 21권 3호

손경미, 2013, “바우만의 액체근대론과 백의 성찰적 근대화론 비교 연구 : 개인화, 위험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2013년 1호(통권 제22집) 139-174

송경재, 2009, “네트워크 시대의 시민운동 연구 - 2008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2권 제1호, 55-83

송경재, 2013, “사회적 자본과 한국의 시민참여-관습적 비관습적 참여와 사회적 자본”, 한국정당학회보 제12권 제2호, 221-244

송호근, 유형근, 2010, “한국 노동자의 계급의식 결정요인 : 울산 지역의 조직노동자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 제87호, 237-262

아름다운재단, 2014, “Giving Korea”, 아름다운북

유수진, 2000, “기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유용민, 김성해, 2007, “노동운동의 담론적 위기 : 신자유주의담론과 미디어 노동담론의 역사적 접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1권 4호 226-251

이광근, 2015, “개인화, 계급, 하위정치 - 울리히 벡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2015년 여름호(통권 94호) 93-127

이승욱, 2015, “마음의 연대”, 도서출판 레드우드

- 이승훈, 2015, “현대 사회에서 연대적 주체의 모색”, 사회사상과 문화 18권 2호, 199-235
- 이승훈, 2015, “‘동감’의 조건과 그 구성 -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 공공사회연구 제5권 제1호 5-35
- 이창원, 김현수, 2014,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도가 문제해결동기 및 기부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300-307
- 이항우, 2012, “소셜 미디어, 사회운동의 개인화 그리고 집합 정체성의 구성-페이스북 그룹 ‘함께 점령’사례 분석”, 경제와사회 통권 제95호 254-287
- 이항우, 2012, “네트워크 사회운동과 하향적 집합행동 : 2008년 촛불시위”, 경제와사회 통권 제93호 244-274
- 이현우 외, 2011,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기부문화”, 경기연구원 1-25
- 예종석, 2010,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나눔문화의 정착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전상진, 2009, “2008년 촛불현상에 대한 세대사회학적 고찰”, 현대정치연구, Vol.2 No 1, 5-31
- 정수영, 2005, “개인기부자의 기부 관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은영, 2009, “개인기부자의 기부방향 결정변인에 관한 연구 : 연령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우정, 2010, 이슈소유권 NGO의 명성 그리고 기부 의도간 관련성 : 기부자 동기 및 유형에 따른 조절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과 석사학위 논문
- 정태석, 2009,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에서 사회구조적 변화 읽기 : 불안의 연대, 위험사회, 시장의 정치”, 경제와사회 통권 제81호

- 정호영, 2006, “사회복지시설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기부금액과 기부기간을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조돈문, 2008.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경험과 노동계급 계급의식”, 경제와사회 통권 제79호 184-213
- 조효진, 2006, “공감능력과 이타성향간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종렬, 2004.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사회자본 개념의 이념형적 구성”, 한국사회학 제38집 6호 97-132
- 최혜지, 2004, “손자·녀 양육형태가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세대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4(3); 41-49
- 한 준 외, 2014, “사회적 관계의 양면성과 삶의 만족”, 한국사회학 제48집 5호 1-24
- 허 건, 2015, “집단적 사회운동에서 네트워크 사회운동으로의 변화에 대한 연구-희망버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 홍은진, 2005, “기부참여와 기부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7권 제3호(통권15호) 123-152
- 홍윤기, 2010, “연대와 사회결속 : 연대의 개념, 그 규범화의 형성과 전망, 시민과세계 제17호 pp.45-64
- Bauman. S., 이수영 옮김, 2010, 새로운 빈곤, 천지인
- Beck. U. et al, 임현진·정일준 옮김, 성찰적 근대화, 한울
- Durkheim. E., 민문홍 옮김, 2012, 사회분업론, 아카넷
- Lau, S. & Blake, B. F., 1976, “Recent research on helping behavior:An

- overview and bibliography”, Journal Supplement Abstract Service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Ostrower. F, 1995, *Why the Wealthy Give: The Culture of Elite Philanthrop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ayton, R. L., 1989, *Philanthropic value. Philanthropic giving*, Oxford University Press
- Putnam. R. D., 정승현 옮김, 2009, 나홀로 불링, 페이퍼로드
- Sargent, A., 1999, “Charitable giving: Towards a model of donor Behavior”,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15(4):215-238
- Shaffer, D. R., 1994,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CA, Brooke Cole
- Urbain. C. et al, “What does the future hold for giving? : An pproach using the social representations of Generation Y”, *International journal of Non 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18:3 159-171
- Wispe, L. G., 1972, “Positive Forms of social behavior: An overview”, *Journal of Social Issue*, 28, 1-19
- Zoll. R., 최성환 옮김, 2008, “오늘날 연대란 무엇인가”, 한울

[기타자료]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http://www.beautifulfund.org>

아름다운재단 공식 블로그 <http://bfpeople.tistory.com>

소셜펀치 <https://www.socialfunch.org>

경향신문, 2015.10.19 “풍요 속의 빈곤..한국 삶의 질 OECD 중 최하위권”

동아일보, 2015.10.20, ‘헬조선 이유 있었네..한국인 삶의 만족도 OECD 중 최하위권’



Abstract

Giving Behavior as Social Solidarity

: Focused on the Case of Yellow Envelope Campaign in 2014

Ahn, Hyo mi

Masters Program of Urban Sociology

The University of Seoul

A contribution which is a voluntary practice of social members for community serves such important functions as creation of social solidarity and control of conflicts. In addition, in the point that a giving becomes a supplementary resource to promote voluntary activities in the private sector, more social attention has been paid to giving. Despite the fact that the rate of citizens' giving and the size of giving have been on the steady rise in Korean society, giving culture has inclined to charitable giving based on compassion. Therefore, it is hard to see that giving are systemized for the purpose of community solidarity.

However, recent clues have showed that motives for giving have gradually expanded from the compassion-based social welfare to social responsibility and community solidarity. Given the assumption that

giving behavior has gradually expanded to social solidarity from the private source of the charitable and social welfare.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causes and attributes of the change utilizing the case of 'Yellow Envelope Campaign' which had been performed by the Beautiful Foundation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the living expenses of the fired workers and improving relevant legal systems in 2014.

This study collected data by conducting a questionnair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with participants in 'Yellow Envelope Campaign'. this thesis first analyzed the causes of the change to social solidarity, and secondly investigated the features arising in the process of 'Yellow Envelope Campaign',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ffecting giving, and looked into the attributes of social solidarity -'horizontal relationship', 'common responsibility', 'creation of social capital', and 'pursuit for conflict solution'-to find whether giving to 'Yellow Envelope Campaign' were made in the type of social solidarity.

'Yellow Envelope Campaign' was initiated not by a non-profit organization to raise funds to solve social problems, but by a citizen who brought out a question of the legal system to claim damages of the fired workers and suggested the idea of chipping in to pay. Also the Beautiful Foundation designed and performed the campaign based on the image of 'Yellow Envelope' (drawn from 'pay envelope') in order for any salary person to feel emphasized with the issue. That is the difference from a fund-raising campaign which highlights the pains of the donated persons through organized activities and separates donors and the donated.

Donors to 'Yellow Envelope Campaign' also feel emphasized with the difficulty the fired workers have and internalize the feeling. Therefore, they consider the fired workers as 'the co-workers to address the issue together', not as beneficiaries. With the common responsibility as the same worker and social member, they participated in the campaign. The giving based on social solidarity created a sense of kinship (sense of belonging) as a social member, cooperative network to achieve the common goal, and reciprocity and trust of neighbors who can help out in difficult situations.

Giving to 'Yellow Envelope Campaign' were accomplished with the will to solve the conflict that the fired workers face. The campaign was aimed at not only address actual issues, including the 'support the living expenses for the fired workers' and 'legal system improvement', but providing basic solutions, such as the expansion of social solidarity' and 'the creation of social atmosphere to guarantee workers' human rights'. It is analyzed that the 'Yellow Envelope Campaign' features social solidarity of donors, rather than their charity. This study suggested that giving behavior would be able to expand to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solidarity from the charitable giving and the private resource of the social welfare based on compassion which were considered to be the main feature of a giving. In particular, this study contribute by showing that in the current society where individuals suffer from emotional poverty on account of individual fragmentation and isolation, not only giving of physical resources are needed, but giving for emotional support and solidarity are required

and performed already.

This study has limitations as follows. Given that 'Yellow Envelope Campaign' was initiated by a citizen with the idea of chipping in to pay and thus already featured social solidarity; and that the participants to the campaign also made giving for social solidarity, on the basis of the study result, it is hard to say that giving expand to social solidarity. Nevertheless, the campaign is not the change in the whole society, but is considered as a start point. In particular, the clue of this study presented that those in their 20's and lower are sceptical about conventional structured solidarity act and their awareness of and motives for giving change to solidarity behavi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in-depth research on the differences in awareness of and motives for giving by generations.

Keywords: giving, social solidarity, social participation, Yellow Envelope Campaign